

1950년대 소설에 나타난 반미의 양상과 젠더

김복순*

차례

1. 1950년대 문학에 대한 재사유의 필요성
2. 반미의 제 양상과 젠더 연관
 - 2.1. 근대 지향적 이념으로서의 반미
 - 2.1.1. '가부장제 수호'로서의 반미: 『깃발 없는 기수』 『경고구역』
 - 2.1.2. 반공주의로서의 반미: 『끝없는 낭만』
 - 2.1.3. 저항적 민족주의로서의 반미: 『보수』 『황선지대』 『해도초』
 - 2.2. 반(反)근대화로서의 반미
 - 2.2.1. 물질문명에 대한 부정으로서의 반미: 『끝없는 낭만』, 『쏘리 킴』, 『난영』, 『태양의 유산』
 - 2.2.2. 남성 중심적 근대화에 대한 비판으로서의 반미: 『전략의 기록』
 - 2.2.3. 반(反)자본주의로서의 반미: 『고요한 밤』
3. 맺는말

국문초록

본 연구는 1950년대의 문학 및 사회에 대한 재사유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점령의 소거'를 통해 1950년대를 일정하게 담론화하였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연구결과 1950년대는 전면적인 친미-반공 카르텔도 반미의 무풍지대도 아니었으며, 반미의 양상도 '기지촌 문학', '세태소설적 경향'으로 압축되지 않았다.

1950년대의 반미는 근대 지향적 성격과 반(反)근대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었다. 이는 '새로운 나라 만들기'와 관련하여 상반되는 탈식민적 시차(視差)가 동시에 존재하였음을 입증해 준다. 이처럼 1950년대 문학은 다양성과 중층성을 지니고 있었다. 상반된 탈식민적 시차는 또한 미국표상이 정치, 경제,

* 명지대학교 기초교육대학 교수

군사, 문화적으로 동일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전자의 계열에서 젠더는, 한편으로는 ‘성적으로 전유’되어 ‘가부장제 수호’라는 남성성 회복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반공주의의 여성성 전유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저항적 민족주의로서의 반미 계보에서는 ‘여성’이 마치 ‘민족적 저항을 방해’하는 요인인 것처럼 서술되었다. ‘민중의 힘의 발견’은 드러났지만, 여성들은 새로운 삶을 ‘꿈꾸게’도 하는 동시에 ‘불가하게’도 만드는 ‘위험한 존재’로 부각되었으며, 피식민 여성은 피식민 남성의 위기 탈출 및 남성성 회복에 기여한 후, 역할이 끝나자 버려졌다.

후자의 계열에서는 근대화의 남성 중심적 성격들이 비판되고 있기에 전자 계열에서처럼 여성이 매도되거나 버려지지 않았다. 물질문명이 비판되면서 피식민 내부의 가치들이 상대적으로 인정되면서, 피식민 내부의 이중 타자였던 여성성들도 일정하게 인정되었다. 이중의 식민성을 제거하는 일이야말로 새로운 나라 만들기의 중요한 요소임을 피식민 여성젠더의 시선을 통해 명쾌하게 제시하였다.

전자의 계열은 ‘민족 범주 우선성’ 속에서 작동하고 있었으며, 후자의 계열은 ‘다른 근대화의 지향성’을 드러내었다. 후자는 자본주의적 근대에 대한 직·간접적 비판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눈 여겨 보아야 할 점은, ‘친미-반공’ 연합이 아닌 ‘반미-반공’ 연합을 발굴하여 제시했다는 점이다. 선우 휘의 『깃발 없는 기수』는 ‘반미+반공’을, 최정희의 『끝없는 낭만』은 ‘반공주의로서의 반미’를 보여 주었다. 1950년대는 전면적인 친미-반공 카르텔도, 반미의 무풍지대도 아니었음이 확인되었다. 1960년대 이후와 달리 1950년대에는 반미의 외연이 다양하게 확장되어 있었다.

본 연구 결과 1950년대 소설은 지배담론에 종속되어 있지만 한 것이 아니라 ‘저항담론’의 성격도 일정하게 표출하고 있었으며, 각 계열에서 확인되는 반미의 시차는 1950년대 문학의 분단문학적, 민족문학적 특징으로 지적되었다. 1950년대 소설 역시 국가·민족·젠더·계급의 차원에서, 근대화와 근대 극복이라는 ‘이중과제’를 나름대로 실천한 문학이었다.

핵심어: 반미, 점령의 소거, 냉전체제, 탈식민적 시차, 반공주의, 반미-반공 연합, 미국 표상, 분단문학, 민족문학

1. 1950년대 문학에 대한 재사유의 필요성

기존 연구에 의하면, 해방 후 한국사회는 반공주의를 국가 이데올로기의 전면애 내세워, 지배담론의 핵심적 측면이 반공주의가 되는 ‘반공규율사회’로 개념화되었다고 평가되었다. 이러한 사회조건 속에서 1950년대에는 ‘반공 의사합의’가 존재했고, 국가권력의 ‘백색 테러리즘’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시민사회는 수동화되고 주체화의 정도는 낮게 전개되었다고 평가되었다.¹⁾

이와 동일한 관점에서 1950년대 문학 역시 반미적 시각이 자취를 감춘,²⁾ ‘반미의 무풍지대’³⁾였다고 평가되었다. 해방 직후의 문학은 미국 비판을 형상화 했지만, 1950년대 문학은 당대적 소명을 다하지 못한 함량미달의 문학으로 평가되었다. 최원식도 1950년대에 미국은 한국의 절대적 구원자로 미화되어 있었으며, 부분적으로 그리는 경우에도 세태소설을 벗어나기 어려웠다고 술회한다. 반미의 목소리를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본 경우에도 반미는 1950년대 ‘후반’ 들어 자유당 독재의 모순이 격화되는 것과 함께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지배적이었다.⁴⁾ 즉 소설 속의 반미⁵⁾는 4.19 이후인⁶⁾ 1960년대에 폭발되어 1980년대에 절정에

1)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 읽는 책, 2003, 제1장 참조.

2) 강진호, 『외세의 질곡과 민족의 주체성』, 『남정현 문학전집 3』, 국학자료원, 2002, 64쪽.

3) 고영직, 『한국 반미문학사 서설』, 『전쟁은 신을 생각나게 한다』, 화남, 2003, 443쪽.

4) 최원식, 『민족문화와 반미문학』, 『창작과 비평』, 1988년 겨울, 89쪽.; 장세진, 『상상된 아메리카와 1950년대 한국문학의 자기 표상』, 연세대 박사논문, 2008, 87~115쪽.

5) 본고에서 반미는 ‘미국, 미국정부, 미국의 국내제도들, 미국의 대외정책, 미국의 주요 가치들, 미국의 문화, 미국인들에 대한 적대적인 행위나 표현’(김진웅, 『반미』, 살림, 2003, 46쪽)하는 총칭으로 사용한다. 김진웅의 말대로 좁은 의미로 사용할 경우 그것은 거의 드문 형상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정서적인 반미감정과 이데올로기적인 반미주의를 구분하기도 하나, 반미는 실제로 매우 복합적

이른다⁷⁾거나 1980년대 이전의 것은 미국에 대한 항의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⁸⁾고 지적되었다. 이렇게 볼 때 1950년대는 친미-반공 카르텔, 반미의 무풍지대, ‘기지촌 문학’, ‘세대소설적 경향’으로 압축된다.

또한 기존의 논의에서 두드러진 경향은 주로 기지촌 소설과 관련하여 반미가 언급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기지촌 소설 위주의 반미에 대한 접근은 궁극적으로 ‘여성 수난사 이야기’에 침윤되는 시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기지촌 소설의 등장과 관련하여서도 실상은 1950년대 후반⁹⁾이 아니라 전쟁이 지지부진해지기 시작한 1951년이라는 점에서 사실관계 또한 수정될 필요가 있다.

또 1950년대의 한국이 진정 반미의 무풍지대였는지, 반미의 소설적 성취가 ‘기지촌 문학’ ‘세대소설적 경향’에 불과했는지도 상세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미군은 1945년 9월 8일 남한에 주둔하면서부터 ‘점령군’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뚜렷이 드러냈고,¹⁰⁾ 1950년대는 한국전쟁을 계기로 미국이 동아시아를 냉전의 전초기지로 간주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한 시기였지만, 동아시아 국가들도 나름대로 자국의 정치적 운명을 독자적으로 개척하고, 미소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 전환의 시기였기 때문이다. 즉 1950년대는 대외적인 한미관계뿐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이어서 의식적으로 반미여도 감정적, 무의식적으로는 동조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위의 책 및 이강로, 『한국내 반미주의의 성장과정 분석』, 『국제정치논총』 제44집 4호, 2004, 239~261쪽.

6) 반미에서 시기구분은 4·19 또는 5·18이거나 한미협정이 기준이었다. 대개는 전자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박훈하는 한미협정을 기준점으로 삼아 1966년이 중요한 구분점이 된다고 본다. 박훈하, 『기지촌 소설의 존재방식과 이데올로기』, 김정자 외, 『한국현대문학의 성과 매춘 연구』, 태학사, 1996, 145~190쪽.

7) 하정일, 『반미의 세 층위』, 『민족문화사연구』 제36집, 2008, 317쪽.

8) 이성욱, 『반미문학의 전개과정과 과제』, 『비평의 길』, 문학동네, 2004, 277쪽.

9) 고영직, 앞의 글, 444쪽.

10) 이혜숙, 『미군정기 지배구조와 한국사회』, 선인, 2008. 제1장 참조.

근본적인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었던 시기였다¹¹⁾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친미-반공 이데올로기가 극단적으로 고착되는 것이 1960년대 중반 이후라는 점에서 1950년대 문학을 반미의 무풍지대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반미의식이 반공 이념체제의 심화과정 속에서 일종의 침묵의 카르텔에 묻혀 ‘내면화’되고 말았는지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루스 커밍스의 지적처럼 한국의 국민국가적 성격은 ‘외세에 관통당한 (penetrated) ‘반(半)’ 주권국가¹²⁾의 종속성을 지닌다. 이는 아이러니컬하게도 1950년대가 친미-반공 이데올로기의 ‘전일적’ ‘전면적’ 지배 하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 준다. 실제로 1950년대 후반의 진보당 사건은 이를 반증한다. 전후 사회는 나름대로 새로운 시민사회 건설을 위한 다각적인 모색을 이뤄 나가고 있었으며, 비판적 시민사회의 성장도 전개되고 있었다.¹³⁾

1950년대 문학 = ‘친미-반공’문학으로 규정하는 것은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당대 사회로부터 50여 년간 규율되어 왔던 금기로부터 안전하게 자신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당대의 실상과 일치하지 않는다. 1960년대 문학이 ‘성찰의 서사’ ‘모색의 서사’로 명명¹⁴⁾될 수

11) 차상철, 『이승만과 1950년대 한미동맹』, 문정인·김세중 편 『1950년대 한국사의 재조명』, 선인, 2004, 343~346쪽.

12) B. 커밍스, 『냉전구조들과 한반도의 지역적 전지구적 안보』, 『창작과 비평』 2000. 여름, 22쪽.

13) 한국전쟁의 성격이 ‘제한전쟁’으로 바뀌는 1951년 중반 경부터 이미 『사상계』 『여성계』 등의 창간이 이루어졌고, 학문적 천착을 위한 노력도 계속되어 학회의 창립과 함께 학회지의 창간(『역사학보』 『진단학보』 등)도 대거 이루어지게 된다. 자세한 것은 김복순, 『전후 여성교양의 재배치와 젠더정치』, 『여성문학연구』 제19호, 2007, 7~60쪽 참조

14) 하정일, 『주체성의 복원과 성찰의 서사』, 민족문화사연구소 현대문학분과 편, 『1960년대 문학연구』, 1998, 13~44쪽. ; 김복순, 『1960년대 소설의 연애전유 양상과 젠더』,

있다면, 1960년대의 문학의 그와 같은 자양분은 4·19에만 있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 1960년대 문학이 폭발적인 목소리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1950년대 문학 속에 내재한 다양성 및 중층성을 수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실제로 최근의 연구들은 1950년대 문학의 이러한 특징에 주목하고 있다.¹⁵⁾ 다양한 탈식민적 시차(視差, parallax)¹⁶⁾를 드러내고 있으며, 반미를 포함한 당대 사회의 부정성 및 저항, 전복의 목소리를 배태하고 있다.

1950년대의 반미에 대한 폄하는 반미주의의 개념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면서, 즉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 자체에 근본적으로 적대적인, 이념으로서의 체계적인 반미주의에 기준을 두고, 1950년대를 ‘함량미달’ 또는 ‘결여형태’로 보는 시차에서 비롯된다. 이는 4·19 이후 및 1980년대 이후의 반미를 기준으로 이를 1950년대에 선형적으로 또는 당위적으로 규정하려는 태도이다. 즉 사실관계에 입각한 당대의 사회상을 적확히 친착하지 않은 채 1950년대에 대한 담론화의 방향을 대체적으로 추수하는, 일종의 비역사적 태도에 해당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태도가 ‘점령의 소거’ 및 그를 통한 보수적 내셔널리즘의 구축과 연관된다는 점이다. 전후의 ‘자유’나 ‘민주주

『대중서사연구』 제19호, 2008, 7~56쪽.

15) 대중서사학회의 1950년대 특집, 한국여성문학학회의 1950년대 대표 잡지(『여원』) 특집 등이 있다. 『대중서사연구』 제17호(2007.6)에서는 「한국대중예술사의 집중탐구: 1950년대의 대중예술」을, 『여성문학연구』 제18호(2007.12)에서는 「전후 한국문화와 교양, 여성, 미디어의 젠더정치」를 각각 특집으로 다루면서 1950년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준 바 있다. 상허학회의 특집 「1950년대 미디어와 미국표상」(『상허학보』 제18호, 2006.10)은 세부내용을 보충하는 것일 뿐 기존의 담론화의 방향을 그대로 추수, 강화하였다.

16) 시차란 관찰 위치에 따라 대상이 달라 보이는 것을 일컫는다. 즉 동일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주체가 어떤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시차이다. 지젝은 이런 근본적인 차이를 낳는 관점을 ‘시차적 관점’(the parallax view)으로 부른다. 슬라보예 지젝, 김서영 옮김, 『시차적 관점』, 마티, 2009.

의'에 대한 답론은 기실 '점령의 소거'라는 '배제를 통해 만들어진 의제 속의 사건'¹⁷⁾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점령의 소거'에 대해서도 재사유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점령의 소거'에 대한 재소거는, 반미의 문제를 '외세' 강조에 그치지 않고, 이를 '체제'와 연결지어 규정하는 동시에 외세에 대한 극복의 전망을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 1990년대의 탈근대 논의가 근대라는 역사적 단계를 지나치게 평면적으로 혹은 추상적으로 이해함에 따라 현실의 구조적 문제와의 대면을 회피하는¹⁸⁾ 탈식민적 시차라면,¹⁹⁾ 본고에서는 근대 및 근대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토대로 근대 극복에 대한 '역사성 회복'의 탈식민적 시차를 천착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1950년대의 미국 비판이 어떤 양상을 띠는지 검토하면서, 그

17) 江藤淳, 『落葉の掃き寄せ』, 문예춘추, 1981. : 吉見俊哉, 『親美と反美』, 岩波新書, 2007, 85~86쪽에서 재인용.

요시미 순야에 의하면, 2차 대전 후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은 군사-경제적인 분업체제였다. 즉 일본과 한국·대만 등을 분리하여, 일본은 '경제중시'의 틀로(군사는 오키나와로 배치), 한국·대만 등은 '군사 우선'의 틀로 분할·접근하였다. 따라서 이 세 나라에서 '미국' 표상은 상이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기지나 폭력 등의 경험과 기억에서 분리되어, '미디어를 통해 소비되는 풍요의 이미지'로 순화되며, 타자라기보다 일본 사회의 문화소비를 가동시키는 내부 심급이 된다. 자세한 것은 서장 및 제2장 참조.

전후 일본에는 '우익적 반미'와 공산당·재일 한국인에 의한 '전투적 반미'의 두 종류가 있다. '우익적 반미'가 오랫동안 주변적인 것에 머물렀던 이유는 전후 천황제를 신봉하는 내셔널리스트의 경우 반미는 천황을 비난하는 자기모순에 빠지기 때문이다(위의 책, 208~209쪽). 공산당 주도의 반미가 한국전쟁 등의 국제정세에 의해 직접 좌우되었다면, 일본에서 대중적인 반미의식의 기초가 된 것은 '반 기지'라는 맥락이었다(위의 책, 211~212쪽). 반면 공산주의 운동은 '매국적 아메리카니즘'을 비판하는 진정한 '애국자를 위한 국민주의적 운동'이라는 외양을 띠었는데(위의 책, 214~215쪽), 이는 한국과 매우 다른 양상이다.

18) 이남주 엮음, 『이중과제론』 서장, 12쪽.

19) 1990년대에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위세가 한창임에도 현재(근대)를 '근대 이후'로 규정하거나,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변화 없이 '근대 이후'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견해가 다수 제출되었다.

것이 민족 주체성의 표현과 연관되는 방식을 천착할 것이다.²⁰⁾ 또 이 과정에서 ‘근대의 특수성’ 중 하나²¹⁾인 ‘젠더’가 관계 맺는 방식을 밝힘으로써 반미-민족-젠더의 연관방식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또 어떤 계급의 시각에서 전개되는지, 즉 민중의 입장에서인지 지배층의 입장에서 인지를 밝힘으로써 각 입장과 젠더가 관계되는 방식의 차이도 아울러 고찰할 것이다. 이는 반미에 대한 다양한 시차를 확인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반미의 문제가 올바르게 천착될 때 1950년대 문학의 민족문학 및 분단 문학으로서의 성격 및 위치, 근대(성) 및 근대문학의 성격이 제대로 자리매김될 수 있을 것이다. 동일한 대상에 대한 다른 시차를 극복하는 문제가야말로 해방 후의 한국문학을 사유하는 가장 기본적인 관건이다. 본고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

2. 반미의 제 양상과 젠더 연관

2.1. 근대 지향적 이념으로서의 반미

2.1.1. ‘가부장제 수호’로서의 반미: 『깃발 없는 기수』 「경고구역」

대표적인 반공 작가로 알려져 있는 선우 휘의 『깃발 없는 기수』는 해방직후의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빛을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테러리즘을 고발²²⁾한 작품으로 평가되어 있다. 하지만 선우 휘의 소설을 꼼꼼히 읽

20) 1950년대 문학의 대상은 한국전쟁의 성격이 ‘제한전쟁’으로 변하는 1951년 중반부터 1960년 4·19가 일어나기 전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4·19는 반미와 관련하여 ‘대 시기구분’에 해당될 정도로 중요한 기준점이다. 소설에 나타나는, 1950년대와 1960년대의 반미의 가장 큰 차이는 민족을 절대시하는 근본주의가 등장한다는 점이며, 구조적 인식의 깊이가 깊어진다는 점이다. 1960년대 이후의 반미에 대해서는 후속 논문에서 상세히 고찰할 것이다.

21) ‘근대 보편주의’와 관련하여, 젠더와 인종은 근대의 특수성 중 하나이다.

어보면 단순히 반공을 그린 것도, 비인간적인 테러리즘을 고발한 것도 아님이 드러난다.

『깃발 없는 기수』는 1959년 『새벽』에 실린 중편소설이다. 기존의 평가와 달리 반미와 반공을 동시에 드러내는 중층성의 작품이다. 허윤과 형운, 영수, 순익과 곰의 다섯 명을 중심으로 해방직후 안개를 잡는 느낌(97)²³⁾인 한국의 정치적 혼란상과 함께 이십세 청년들의 정신적 방황 및 민족적 선택의 문제를 제기한다. ‘혼돈 속에 내던져진 한 젊은이’를 그리면서 작가는 ‘그에게는 깃발이 없었’지만, 어떤 깃발보다도 ‘보다 훌륭한 보이지 않는 깃발이 있었’(22)던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 소설의 주인공 허윤은 고향과 가족을 버리고 단신 월남하여 신문사 기자로 근무하는 인물이다. 그의 친구 네 명은 정치적 성향이 각기 다르다. 순익은 공산주의자이며, 용수는 이승만 계열로 추정된다.

『깃발 없는 기수』에서 ‘깃발’은 반미와 반공으로 요약된다. 전반부에서는 반미를, 후반부는 반공의 깃발을 보여 준다. ‘한 놈 기어 가니까 두 놈이 들어 왔다’(29)고 함으로써 일제 와 해방직후의 미소를 구식민/신식민의 동일한 식민/피식민 관계로 언급한다. “양키도 언짢지만 로스케는 더 싫다”(29)고 함으로써 신식민성의 두 요인을 인식시키는 동시에 ‘팔삭둥이’인 “해방을 반환하고 싶다”(60)고 함으로써 해방에 식민성이 개재되어 있음을 일갈한다.

이 소설은 처음부터 미군 병사에게 위압감과 열등감을 느끼는 허윤을 제시한다. 미군과 자신은 ‘늘씬한 키/누르스름한 볼품없는 빈상’으로 대비되는데, 소설 중반부까지 줄기차게 반복되는 ‘엽전’이야말로 자국민-남성에 대한 자기비하적 상징으로, 거세 또는 불능의 메타포이다.

22) 배경열, 『선우 휘 문학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1, 57쪽.

23) 선우휘, 『깃발 없는 기수』, 황순원·김성한·이어녕 편, 『선우 휘 문학선집 3』, 조선일보사, 1987. 이후의 인용은 쪽수만 표시하기로 한다.

허윤이 반미의식을 갖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한국 여성들을 지키지 못해서이다. 허윤의 이러한 열등감은 “쓸만한 처녀는 모두 저놈들 차지”이기 때문이고, ‘내고장 여자’를 모두 미군이 ‘가로채기 때문’이다. 초반부에서 미군은 한국 여성과의 관계망 속에서 그려진다. 푸른 대문집 여자와, 공산주의자 이철과 내연의 관계인 퍼킨스의 여자 윤임은 모두 미국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공통점 때문에 질타의 대상이 된다. 즉 허윤의 ‘깃발’은 ‘한국여자 지키기, 종족의 미 지키기(32), 전통과 개성 지키기(67)’로 요약된다. 하지만 소설의 내용은 후자의 두 가지는 생략한 채 전자의 ‘한국 여자 지키기’로 집중된다.

허윤의 반미적 언사는 국대안 사건에 대한 견해에서 극단적으로 표출된다. 제 고장 여자를 지키지 못해 반미의식을 갖게 된 허윤은 국대안 사건을 통해 ‘공산당보다 군정청 처사에 대한 반감이 더 크다’고 말함으로써 반공보다 반미를 더욱 강조한다. 공산당을 일종의 ‘깃발’로 보는 시선이다. 비록 이념은 다르지만 나름대로의 ‘방법’에 의해 선택된 깃발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군정청의 처사는 깃발조차 제대로 들 수 없게 한다는 점에서 ‘공산당보다 군정청 처사에 대한 반감이 더 클’ 수밖에 없었다. 이는 ‘공산주의라는 이념’보다 ‘미군정의 식민성’을 심급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 소설에서 윤임은 반미와 반공의 연결고리로 작동한다. 퍼킨스의 여자라는 이유로 반미감정을 초래케 한 윤임은 실상 공산주의자 이철과 깊은 관계였다. 반미 또는 반공이 여성에 의해 촉발된다는 점에서 이 소설의 최종심급은 ‘젠더’이다. 반미 또는 반공은 민족적 선택인 깃발로 상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여성을 보호하는 일’로 축소되어 있으며, 이 때 여성은 남성에게 의해 ‘보호받아야 할 자’일 뿐이다. 따라서 허윤의 ‘깃발’은 민족의 이름을 가장한 ‘가부장제 수호’(남성성 확보)에 불과하다. 반미 또는 반공은 가부장제 수호란 이름의 민족주의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

다. 이러한 논리는 허윤이 푸른 대문 집 여자를 갖고 난 이후 미국병사에 대한 열등감에서 벗어난 것이라든지, 윤임을 취하러 산장호텔로 잠입한 후 그녀를 취할 기회를 얻고 난 이후에 확인된다. 즉 허윤이라는 한국-남성의 열등감이 삭제된 것은 ‘미국-남성의 여자’를 취한 후이다. 식민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음에도 허윤의 열등감은 씻은 듯이 삭제되어 버린다.

또 다른 반공의 의미는 명철이라는 아이에게 ‘거짓 희망’을 비쳐 준 이유로, 이철을 죽여야겠다고 다짐하는 것으로 표출된다. 즉 이데올로기로서의 공산주의 이념이 ‘거짓’이기 때문인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서술자는 결말 부분에서 실토한다. 사실은 명철 때문이 아니라고.

이철이를 죽이고 싶다고 생각한 건 윤임이 때문인지도 몰라. 그날 밤 윤임이와 어거지라도 잤어야 했을 걸 하는 엉뚱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랬다면 공연히 핑계를 찾아 죽이려구 하지 않았을는지 몰랐다는 생각도 들었다. 푸른 대문 집 여자하고 잔 뒤로는 별로 양키들이 마음에 걸리지 않았다는 생각도 났다.(131)

인용문에서 보듯, 이철이 말한 ‘거짓 희망’은 실제로 ‘핑계’였다. 결국 허윤은 이철을 권총으로 쏘 죽이고 남성성을 회복한다. 이밖에도 허윤의 민족적, 정치적 깃발은 소설 곳곳에서 여성의 성과 연관되어 거론된다. 허윤과 용수의 대화에서 “예나 지금이나 전쟁이란 계집 빼앗아 가는 거지 별다른 것인 줄 아나?”(27)라는 말이나, “난 두루 돌아다녀봐서 알지만 일본 계집이든 중국년이든, 노서아 것이건 유태인 것이건 계집은 계집이지 뭐 별것인 줄 아나?”라는 발언은 전쟁을 모두 계집과 관련하여 사고하는 것이다. 특히 후자의 발언에서는 민족·인종 간 차이를 모두 삭제하고 오직 젠더로만 사고하는 편린을 드러낸다. 해방 직후의 폐창운

동과 관련하여서도 형운을 통해 ‘창녀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그네들과 자 주는 일’(35)이라 일갈한다. 또 당대의 대표적인 공산주의자 이철을 묘사하는 장면에서도 그의 사상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철의 ‘여자 낚는 재간’에만 집중하며 관심을 보인다. 또 공산주의자 순익이 이철을 추앙하는 발언을 하자 허운은

“.....녀석이 아직 덜 돼 먹었어. 녀석이 ‘고민이 수태’(코뮤니스트를 말함:필자)니 노동자 농민하구 떠들 때보다 되려 윤임의 젓가슴을 더듬을 때 정말 사람답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 모양이지”

“자넨 그저 그거 하나뿐이군.”

순익이 빈정댔다.(49)

이러한 태도는 공산주의를 ‘적’으로 규정하는 것과도 다른 차원이다. 해방직후의 민족적 선택과 관련하여, ‘깃발’을 올리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방법’을 택한 사람과는 진정성을 놓고 이론적 논쟁을 펼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허운은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오로지 이철의 ‘여자 낚는 재간’에 집중하면서 비아냥거릴 뿐이다. 즉 이 소설은 이념적인 것을 성적으로 재현하는(eroticized representation) 전형적인 방식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소설에서 반미, 반공은 여성을 통해 한국-남성의 가부장성(남성성)을 회복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훼손된 남성성의 극복과 관련한 소설들이 1960년대 중반 이후에 나타났다고 보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 소설에서 강하게 모색되고 있었다.²⁴⁾ 반미가 반공과 연결될 수 있었던 것도 그것이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젠더를 ‘수단’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즉 이 소설의 최종심급은

24) 박훈하, 앞의 글, 147쪽.

널리 알려진 것처럼 ‘반공’(또는 ‘반미’)이라는 ‘이념’이 아니라 ‘젠더’이며, 한국-남성의 가부장제 수호를 위한 도구였다. 여성은 ‘성적으로 전유되어’ ‘보호 받는자’로 위치지어졌으며, 새로운 ‘기수’도 ‘민족적 주체’도 아니었다.

『경고구역』(『자유문학』, 1958.9)은 남정현의 등단작이다. 이 소설은 『분지』의 기원에 해당한다. 냉철한 현실인식에 바탕한 풍자, 자유 민주주의에의 갈망, 반미 사상이라는 남정현 문학의 특질이 거칠지만 거의 전모가 다 드러나 있다. 이 소설로부터 『너는 뭐냐』를 거쳐 『분지』로 이어지는 남정현 문학의 내적 발전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경고구역』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주인공 종수의 시선을 통해 이야기되는 누이 순이의 이야기와 아내 숙이의 이야기이다. 종수는 대학 2년을 중퇴하고 병역 의무를 필한 ‘탁 바라진 가슴’과 ‘우람한 사지의 근육’을 가진 ‘건강’한 대한민국의 남자이다. 그는 자유와 민주를 추구하며 공상과 망상으로 시간을 보내는 회화화된 모습으로 그려진다.

신문에는 늘 ‘자유’와 민주’를 좀 먹으며 살찌는 자의 모습이, 아니 돈이 없고 뺨이 없어 억울한 자의 모습이, 부정부패에 시달리는 자의 모습이 제각기 다양한 형태로 담겨 있으니까 말이다. 그리하여 종수는 그 신문을 펴들 때마다 온갖 억울한 자를 대신해서 힘껏 주먹을 휘두르며 사자후를 토하는 장한 모습을 공상해 보는 것이다. 그러한 공상을 향락하는 시간은 도무지 그 시간이란 것이 지루하질 않아서 좋았다.(16)²⁵⁾

남자답게 사자후를 토하고 싶고 의협심까지 있는 건강한 종수는 그러나 직장은 커녕 이렇다 할 소일거리도 없다. 순이도 오빠를 일궈 ‘케케묵은 전 세기적 퇴물’이라 단언한다. 오직 공상으로만 남성다울 수 있는

25) 남정현, 『남정현 문학전집 1』, 국학자료원, 2002. 이후의 인용은 쪽수만 표시하기로 한다.

종수에게 ‘인생으로서의 무슨 목적 같은 것이 생겼’는데 그것은 ‘제임스란 놈이 함부로 밟고 지나간’ 흔적으로 처참하게 변한 누이동생 순이를 돌보는 일이다. ‘질병의 접대부’인 순이는 온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는 상태이다. 종수는 ‘뚜렷한 직책’이 생긴 듯 누이 돌보기를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다.

순이는 코 큰 자들과 어울리기 전엔 제법 아름다운 곡선과 윤택한 피부의 소유자였지만 제임스에게 배반당한 뒤 ‘도무지 산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기가 좀 난처’한 상태로 전락한다. 종수는 ‘순이의 청춘’을 ‘백의민족의 청춘’으로 은유하며, 복수하기 위해 제임스의 사진을 들고 그를 찾아 거리로 나선다.

이 소설에서 순이의 ‘몸’은 훼손당한 민족과 국가를 정확하게 은유한다. 순이의 망가진 육체를 보며 탄식해 마지않는 종수의 슬픔은 곧 우리 민족의 슬픔이다. 토머스 G. 제임스 육군대위가 종수네 식구들의 ‘시간을 정지시켜 놓’았다고 함으로써 강한 반미적 시각을 드러낸다. 실제로 이 집 식구 네 사람은 ‘잘 사는 사람들이 내다 버린 무슨 폐품과 같은 꼴’(27)로, ‘주섬주섬 집어다가 시궁창에 버려도 괜찮은 존재들’로 묘사된다. 밥 짓는 시간 외엔 잠자는 것으로 충당하는 할멈도 ‘완전히 숨을 거둔 시신과 같’을 정도인데, 이유는 ‘삼팔선으로 인한 민족분단의 비극과 육이오 동란으로 인한 민족상잔의 대 참사’ 때문인 것으로 서술된다. 즉 이 집 식구들은 모두 분단(외세)으로 인해 처참하게 망가지고 훼손된 상태이다. ‘시간도 역사도 정지’되어 있는 상태(13)는 전후의 우리 현실을 그대로 지시해 준다.

여기서의 반미는 미국 ‘국가’에게보다 제임스라는 ‘개인’에게 초점화되어 있으며, 순이에게도 책임이 썩어져 있다. ‘동방예의지국의 백성으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제임스란 놈과 ‘여러 해를 어울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소설은 단순한 반미를 말하지 않는다. 누이동생 서사 외에 아내 찾기 서사가 얹혀 있기 때문이다. 즉 아내 찾기를 통한 남성성 회복이 하나 더 부가되어 있다. 즉 반미(부)가 남성성 회복(주)에 얹혀 있는 형태이다. 종수는 길거리에서 ‘제임스란 놈과 감연히 맞붙어 맞상대를 하는 통쾌한 기분’(23)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소설이 남성성 회복에 우선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내의 벌이에 얹혀 사는 종수는 벌써 사흘 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 아내를 찾아 나선다. 종수의 외출에는 ‘제임스 찾기’와 ‘아내 찾기’라는 두 가지의 임무가 부여되어 있는 셈이다. 아내 숙이는 ‘춤과 노래와 형언할 수 없는 사치한 요물들이 범람하는 지역에 있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것으로 보아 ‘창녀’이다. 먼로 뺨치는 엉덩이에, ‘건는 모습 그대로가 화려한 일종의 쇼’인 여성이지만, 남 앞에서 절대 ‘아내라고 부르지 못하도록’ 종수에게 ‘희한한 생활철학’을 요구한다. 종수는 남편이지만 아내와 성관계를 할 수도 없다. 아내의 몸은 그 자체가 자본이라 어디 한 군데 상처라도 나면 당장 곤란해지기 때문이다.

‘경고구역(警告區域)’

……종수는 그 쪽지를 숙의 가슴 위에 조용히 얹고 눈을 감았다. 그렇다. 경고구역, 나라의 곳곳을 가로 막은 철조망, 그 철조망마다 걸려 있는 무서운 팻말, 경고구역. 단 한발자국만 범해도 그냥 놔두지 않겠다는 당국의 호통이렸다.(28)

아내의 몸은 경고구역이며, 그것을 ‘당국의 호통’이라 언급함으로써 외세에 국내정치가 개입되어 있음도 암시한다. 여기서 아내의 몸은 ‘off limit’ 팻말이 붙은 ‘분단된 조국’을 정확히 은유한다.

이 소설의 장점은, 다 죽은 것 같지만 아침이면 또 다시 일어나 부활하

는 것으로, 네 식구가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같이 부활’하는 것으로 저항성을 간접적으로 환기한다는 점이다.

『경고구역』에서 반미는 훼손되고 황폐화된 한국 남성의 남성성 회복을 위한 장치로 활용되었다. 이때의 남성성은 누이를 돌보고, 창녀인 아내를 찾아 나서는 가부장으로 그려졌다. 『깃발 없는 기수』와 달리 한국 남성은 희화화되어 바보 같은 인물로 그려졌으며,²⁶⁾ 여성의 ‘육체 중심성’이 드러나지는 않았다. 끝까지 제임스와의 한판을 베풀고 있다는 점, 매일 같이 부활하는 식구들을 통해 미국과의 대결이 끊임없이 다짐되고 있다. 민중의 입장에서, 결말에까지 미국 비판의 예봉을 놓지 않고 있으며, 외세는 민중 스스로 부활하듯이 회복해야 할 현대사의 질곡임을 분명히 지시하고 있다.

2.1.2. 반공주의로서의 반미: 『끝없는 낭만』

최정희의 『끝없는 낭만』(1952)²⁷⁾은 ‘친미-반공’의 연합이 아닌, ‘반미-반공’의 연합을 드러낸다. 여태까지 이러한 반미의 사례를 밝힌 바 없다는 점에서 대단히 이색적이라 할 수 있다. 아프레 걸의 계보 중 ‘양공주-낭만적 사랑의 계보’를 선보인 『끝없는 낭만』²⁸⁾에서 반미는 배타적 민족주의를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공주의를 강조하기 위해 활용된다.

이 소설은 이차래라는 지식인 여성과 미군과의 낭만적 사랑을 그리고 있으면서도 강한 반미적 시선을 제시한다. 이 소설에는 미국(인)에 대한

26) 의협심, 상식 이하의 행동, 바보 같은 측면 등은 『분지』의 홍만수로 계승되었다고 할 수 있다. 「너는 뭐냐」의 광수, 「사회봉」의 원규, 「옛날 이야기」의 ‘나’도 이러한 인물군에 속한다.

27) 이 소설은 1952년 『희망』지에 연재되었던 『광활한 대지』를 게재하여 1958년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28) 자세한 것은 김복순, 「아프레 걸의 계보와 반공주의 서사의 자기구성 방식」, 『어문연구』 제141호, 2009, 285~308쪽 참조.

양가감정이 극단적으로 증폭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미국(인)에 대한 선망을 보여주며 보호자·후견인으로 형상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군하구 누가 결혼 해. 그 비굴한 것들 하구’, ‘천하기 짝이 없는 것들’(132) 등의 미국(인)에 대한 적대적 편견들을 무차별적으로 쏟아낸다.

이와 같은 미국에 대한 양가적 감정은 단순히 소박한 민족주의 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중층적 층위를 보이며 색다른 반미를 드러낸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 진행되었던 휴전회담에 대해

……국회에서도 ‘정전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38선 철폐 정전반대 국민총궐기대회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성화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매일같이 ‘휴전반대’ ‘북진통일’을 절규하는 거족적인 시위운동이 거센 타도처럼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건만 판문점에선 우리의 이 결사적인 반대의사를 무시하고 공산측에 유리하도록 휴전회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처럼 굴욕적이며 패배적인 양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엔 우리 국군이 단독으로 북진작전을 결행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만큼 전 국민이 자위권(自衛權) 행사를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공산당에 굴복하기보다 차라리 주검을 주는 것이 낫겠다 하는 투지를 가지고 우리 학생들은 이 운동에 참가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 이처럼 굴욕적이며 패배적인 양보를 하고 있다는 대목이 나를 말할 수 없게스리 흥분시켰습니다.

똑바루 말씀한다면 실상 나는 공산당에 가는 분노보다 미군에게 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123-124)

……‘키 크고 싱겁잖은 게 없다드니 미국 사람들은 키가 커서 뒷심이 없나보지’(126)

……비겁한 것들! 비겁한 것들!

……

……당신들은 울분도 없고 원통함도 모르느냐(127)

위 인용문은 단순히 휴전회담에 대한 반대를 언급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공산당에 가는 분노’보다 ‘미군에게 가는 분노’가 더 치민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미군에 대한 증오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다. 이때의 분노는 미군이 공산당과의 대결을 실행치 않고 휴전회담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 발언은 여러 겹으로 읽을 필요가 있는데, 즉 미군에의 분노가 더 큰 것은 미군이 반공주의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반공주의는 반미의 원인이 된다. 물론 배타적 민족주의 안에 반공주의가 포함될 수는 있다. 하지만 소박하게 민족주의를 제시하는 경우와 반공주의를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경우는 다르다. 이 소설에서 반공주의는 그 어떤 가치체계보다 우선적으로 작동하는 ‘반공주의 우선성’을 드러낸다.²⁹⁾

한국전쟁기 이후 남한 사회의 혼란스럽고 불안한 중간 상태(limbo-status)를 타기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이 소설은 반공주의와 반미의 결합을 제시하는 것이다. 반공주의는 이처럼 필요에 따라 다양한 이념들과 접합하면서³⁰⁾ 자기를 구성하는 담론체였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1950년대는 반공주의적 담론의 지배화 속에서 친미적 인식과 미국에 대한 혈맹적 인식이 강고하게 자리잡고 있던 시기였는데,³¹⁾ 이 소설은 1950년대 반공주의의 친미적 성격보다 반미적 성격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반미의 ‘정치적 특수성’을 보여 준다.

이러한 정치적 특수성은 이 소설의 반미가 분단을 야기한 ‘외세’의 측면보다 ‘통일’의 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즉 ‘군사적 방법’이 아닌 ‘정치적 해결’로 전쟁을 종식하기로 결정한 미군에 대해

29) 김복순, 위의 글, 294~298쪽 참조. 이 논문에서는 미군에 대한 적대적 편견들을 ‘옥시덴탈리즘’으로 규정, 설명하였다.

30) 김정훈·조희연, 『지배담론으로서의 반공주의와 그 변화』, 조희연 편, 앞의 책, 124쪽. 필자들은 이를 반공주의의 ‘무내용성’이라 지적한다. 반공주의는 그 내용의 경직성보다 이러한 무내용성으로 인해 무소불위의 위력을 떨칠 수 있었다고 진단한다.

31) 조희연, 위의 책, 참조

반대하는 것이다. 이는 휴전을 ‘한국에 대한 사형집행영장(the death warrant of Korea)이라 규정한 이승만³²⁾의 북진무력통일론과 상동적³³⁾이다.

이 소설이 반공-반미 연합을 제창할 수 있었던 것은 ‘양갈보-낭만적 사랑’ 유형에 기초해 있기에 가능하였다. 남자 주인공 캐리 조오지가 한국에 파견된 것은 ‘공산주의와 싸우기 위해서’였고(개인적 목적), 인종적 편견에도 불구하고 미군과 낭만적 사랑을 꿈꾸게 된 이차래는 미군이 휴전회담을 통해 북으로 진격하지 않는 것을 반미로 표출한다. 반공을 위해 참전한 미군과의 낭만적 사랑을 꿈꾸는 지식인 여성을 통해, 반공주의를 가열차게 실천하지 않는 ‘반미-반공’ 연합을 창출하여 이채로운 반미의 유형을 보여 준다. 특히 캐리가 미국으로 전근된 후 이차래가 아들 토니를 영아원에 갖다 버리고 ‘자살성 타살’³⁴⁾에 이르게 되는 과정은 배곤의 배타적 민족주의의 언설과 함께 반미적 함의를 증폭시킨다. 이 소설에서 ‘양공주-낭만적 사랑’ 유형의 아프레 걸은 ‘통일론의 입장’에서 반공주의가 여성성을 전유하는 방식 중 하나이며, 여성은 ‘낭만적 사랑의 주체’로 전유되었다.

이 계보는 반공규율사회적 성격 및 작가의 자기검열로 인해 거의 드물게 형성되었다. 홍성원의 『남과 북』(1970, 『세대』지 연재 당시의 제목은 『육이오』)은 양민학살 등 미군의 만행을 드러내지만 ‘반미적’ 소설이라

32) 차상철, 앞의 글, 347쪽.

33) 휴전회담 반대 쫓기대회와 시위는 1953년 3월 30일 이승만이 휴전반대 성명(“통일 없는 휴전 반대는 불멸의 원칙”)을 발표한 후 4월 1일부터 격렬하게 계속되었다. 4월 20일에서 5월 12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휴전반대 쫓기대회와 민중대회는 7,500회, 지방의 대회는 540회, 동원인원은 800여만 명으로 발표되었다. 서중석, 『이승만과 제1공화국』, 역사비평사, 2007, 132쪽.

34) 이차래는 같은 처지의 양공주인 정순자가 독약을 넣은 음료를 마시고 함께 죽게 된다. 둘 다 삶에 비판적이었다는 점에서 ‘자살성 타살’이라 하였다.

보기 어렵다.

2.1.3. 저항적 민족주의로서의 반미: 「보수」, 「황선지대」, 「해도초」

오상원의 「보수」(『사상계』, 1959.5)는 알레고리 수법으로 반미의 문제를 제기한다. 주인공 민규는 양공주를 아내로 두고 있는 윤씨와 함께 미군부대 화차 창고를 털기(일명 암생이)로 작정한다. 이미 「황선지대」에서도 소개된 바 있는 ‘미군 부대 털기’는 여태까지 민규가 써온 방법, 즉 미군 보조병에게 들켰을 때 함께 간 사람에게 뛰라고 해서 미군의 시선을 집중시킨 후 표적이 되어 사살되게 한 후 자신은 무사히 살아 돌아오는 방법을, 스스로 당하게 되는 아이러니칼한 상황을 보여 준다. 바보같은 윤씨가 똑똑한 민규보다 한 걸음 앞서 있었던 것이다. 스스로 처놓은 덫에 걸려 죽는 민규는 “세상이란 강한 자만이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대로 다 저대로 살아가게 마련이다”(525)고 중얼거리며 죽는다.

이 말은 피식민 백성에게 던지는 단말마적인 일갈로 해석된다.

……바라크춘이었다.

전쟁이 낳은 유일한 부산물인 것이다. 그리고 이 부산물은 외군에 의해서만 그 명맥이 이어져 가고 있었다. 모든 것으로부터 제외된 영역, 그곳처럼 살기 위하여 자기에게 충실한 곳은 없었다. 더욱이 낮과 밤이 바뀌어진 이 제외된 영역 속에서는……(507)

전쟁의 부산물로서, 오직 외군에 의해 유지되는 이 곳 미군부대는 ‘낮과 밤이 바뀌어진’ ‘전도된 현실’임을 서술자는 강조한다. 이 소설에서 미군부대는 전도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마음대로 털어도 되는 대상으로 그려진다. 즉 미군 부대는 약탈의 대상이어도 무방한, 그만큼 ‘민족적 거리’

가 있는 대상이다. 또 이 소설에 등장하는 미군 병사들은 하나같이 육육에 눈이 멀어, 세상 돌아 가는 데는 거의 관심이 없는, 바보같은 인물들(예: 미키)로 그려진다. 미군에 대한 이러한 의미부여는 미군에 대한 거부와 함께 잠재적인 반미의식을 드러낸다.

민규와 윤씨가 대립하는 것처럼 그림으로써 한국-미국 간의 충돌보다 한국인들 간의 충돌을 묘사하는 것 같지만, 똑똑하고 힘 있어 보이는 민규가 자신이 처놓은 덫에 죽고 어리석은 윤씨가 대신 살아 남는 반전은 약소민족들에게도 살 길이 나뉠대로 있다는 강한 암시로 읽힌다. ‘어리석어 보이는’ 바보들에게도, 즉 약소민족에게도 역사에 저항할 어떤 힘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의 최대치’를 보여 주는 것이다. 직접적인 반미 행동은 없지만, 『분지』처럼 ‘우화’ 또는 ‘환상’에 기대지 않고 간접적 방식의 반미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민중의 힘의 발견’이라는 간접적 방식의 저항적 민족주의를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황선지대』(『사상계』, 1960.4)와 비교된다. 오상원 소설의 종합판 내지 완결판³⁵⁾으로 평가되는 『황선지대』에서 반미적 인식은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보는 시선, 그리고 여성들뿐 아니라 남북한 국민 모두가 희생자라는 시선에서 확인된다. 미군으로 인해 삶이 망가졌다는 인식과 함께 미군의 ‘풍요’를 털어 새로운 삶을 희망해 보기로 한다. 하지만 『황선지대』에서는 주인공들이 고향이 같은 황선지대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다는 점, 바라크에 당도했을 때 이미 그곳은 텅 비어 있었다는 점에서 『보수』와 확연히 갈라선다.

땅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된 것이 동족인 짜리 때문이라는 점에서 반미적 시선보다 동족 간 갈등이 더 첨예하게 드러나는 일면도 있다. 짜리와 때장(장운)의 갈등이 영미라는 여성 때문이라는 점에서 ‘여성’이 마

35) 송태욱, 『오상원 소설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1992, 79쪽.

치 ‘민족적 저항을 방해’하는 요인인 것처럼 서술되어 있다. 즉 여성은 ‘저항적 민족주의로서의 반미’를 방해하고 동족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존재로 언급되어 있다. ‘꿈팡이 같은’ ‘뿌리 뽑힌 자’들에 대한 따듯한 시선과 연대감을 드러내는 장점을 지니지만, 그것도 여성젠더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 여성들은 새로운 삶을 ‘꿈꾸게’도 하지만 그 반대로 ‘불가하게’도 만드는 ‘위험한 존재’였다.

『보수』는 이와 좀 다르다. 이 소설에서 윤씨의 아내인 양공주는 민규뿐만 아니라 남편인 윤씨의 새로운 삶을 기획해 주는 계기 및 수단으로 작동된다. 양공주가 없었더라면 미군 부대의 구체적인 정보를 캐낼 수도, 접근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양공주를 통해 민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사변 통에 면서기마저 그만 두고 성 불능자의 처지가 된 윤씨가 아내에 대한 성욕을 구체적으로 갖게 된 것도 ‘아내의 몸에 기식하게 되’면서, 즉 미군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훔쳐 봄으로써 가능했다는 점에서 피식민-여성-양공주가 피식민 남성의 남성성 회복의 수단임을 웅변적으로 보여 준다. 하지만 윤씨는 민규와 아내의 속셈, 즉 자신을 배반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두고 보라니까, 네년이 하나는 커녕 둘다 놓칠 테니. 나도 생각이 있어. 한 밀천 하면 너한테로 돌아올 줄 알아?”(520)라고 함으로써 아내를 버리는 것으로 종결된다. 결국 이 소설에서 피식민 여성은 피식민 남성의 위기로부터의 탈출 및 남성성 회복에 기여한 후, 역할이 끝나자 버려진다. ‘간접적 방식의 저항적 민족주의로서의 반미’ 방식에서는 ‘여성성’ 범주가 ‘민족’ 및 ‘남성성’ 범주를 위해 수단으로 활용된 후 ‘버려졌다.’

『해도초』(『사조』, 1958. 8)는 기지촌 매매춘이 더 이상 외세 또는 외국의 상징물이 아님을 직접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한 시기를 긋는다. 외세의 표징 및 폭력은 기지촌이라는 제한된 구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처에 일상적으로 널려 있으며, 이미 한국은 미국의 심각한 군사적 예측

상태로서, 양민학살까지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이 소설의 요지이다. 폭력, 파괴의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소설들과 갈라진다.

이 소설은 1948년 6월 8일 독도 근해에서 조업중인 우리 어선단 4-50척에 대한 미군의 무차별 폭격을 증언한다. 일명 ‘미군기 독도 폭격 사건’³⁶⁾으로 불리는 이 사건³⁷⁾은 1995년 한국외대 독도문제연구소가 진상을 조사하기 전까지 50여 년간 역사의 뒷안길에 묻혀 있었다.³⁸⁾

이 소설은 기자인 ‘나’가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나는 독도로 파견되어 유일한 생존자인 준구를 만나 차초지중을 듣는다. 내가 이번 특파를 수락하게 된 것은 과도정부가 외신과 결탁하여 국내기자를 모욕하고 외면하는 정치상황에 굴욕과 울분을 느낀 이후이다. 민국 정부 수립에 관한 기사를 정부는 외신에 먼저 배포하고 국내기자는 따돌렸던 것이다. 나는 시종 ‘민족적 굴욕감’에 시달리면서, 이미 과도정부의 ‘새로운 나라 만들기’ 전략 단계에서조차 외세와 결탁하여 이중의 식민성을 생산하고 있음을 서두에서부터 항변한다. 정부의 이러한 정치행위

36) 동아일보는 1948년 6월 14일과 17일 동경발 UP 통신을 인용해 『미국 극동함대 사령부가 독도 폭격이 고공폭격 연습대에 의한 것이라고 공식 인정했다. 이 성명서는 “11척의 조선발 어선을 총 폭격하여 14명의 조선인을 살해하고 기타를 부상시켰다”고 전해진 이 사건을 유감스런 사고라고 말한다.』고 보도하였다.

37) 이 소설이 가능했던 것은 1957년 가을 기점으로 미국 기지 주변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 당시의 신문에는 미군의 총질, 칼질 등과 관련한 고발 기사가 사회면에 자주 등장하였다(『동아일보』 1957. 7.6. ; 10.6. 참조). 이러한 당대의 연이은 사건들은 이미 10년 전의 독도 사건을 환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8) 외무부가 펴낸 『독도 관계 자료집-왕복외교문서』에 의하면 정부는 1950년 4월 25일 미 제5공군에 조회하자 미 제5공군은 같은 해 5월 4일 ‘독도와 그 근방에 들어가 금지된 사실이 없었고, 독도는 극동공군의 연습목표로 돼있지 않았다.’고 공식 회답했다. 정부는 6·25 전쟁 중 독도가 미-일 합동위원회에 의해 미군의 연습기지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재차 항의했으며, 미 공군사령관은 정부에 1953년 2월 27일자로 독도는 미 공군의 연습기지 선정으로부터 제외되었다는 공식서한을 보냈다.

를 명나라 때의 조공 및 일제 때의 협력자들과 동케라 보는 나는 이를 새로운 식민성 및 새로운 사대주의의 출현으로 규정하고 비판한다.

나는 ‘백주에 독도 근해에 무차별 폭격이 감행되어 무수한 인명의 피해가 있었다는 현지의 무전 급보를 받고 특파된다. ‘독도를 무인도라고 해서 폭격 연습지로 사용한다’(85)는 것은 통상적으로 해당국의 국토를 침탈하고 유린하는 실로 중차대한 도발행위이다. 더구나 근해에서 조업 중인 어선단을 무차별 폭격하는 것은 ‘신성한 국토에 대한 모독’을 넘어 양민을 학살하는 유린행위이다. 이러한 양민 학살 행위가 ‘살아 남은 어부들이 때마침 출어나간 배에 구조되어 돌아왔기에 망정이지 그들마저 없어졌다면 영영 알 길이 없었을 것’이라는 H서장의 말은 미국에 대한 분노를 가중시킨다.

섬에 도착한 나는 ‘공포와 불안에 찬’ 눈으로 상륙자를 기다리는 주민들을 ‘수난자’로 묘사한다. 남의 나라 땅을 허락도 없이 외국 비행기가 폭격 연습지로 사용한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미국은 더 이상 은인이 아니다. 생존자 준구와 서술자를 통해 미군 폭격기의 만행은 ‘폭약’(87)³⁹⁾이라 규정된다.

이와 함께 이 소설은 섬 주민들과 육지에서 오징어 떼를 찾아 온 선주 패들을 대비시키면서 그들로부터 고리를 얻어 ‘폼팔이 사공질’을 해야 하는 ‘소작 어부’들의 고통을 서술함으로써 섬 주민들이 계급과 민족이라는 이중의 식민성에 고통받고 있음을 보여 준다.

준구를 통해 드러나는 미군 비행대의 폭격은, ‘연합군 비행기가 까마귀 떼처럼 몰려 와서 퍼붓던 ‘나가사키에서의 일’을 떠올리는 사건으로 서술된다. 이 말은 미국이 우리를 적국을 대하듯 공격했다는 뜻이다. 미

39) 전광용, 『해도초』, 『사조』 1958. 8, 『한국해양문학선집 2』, 한경, 1995. 이후 인용은 이 책의 쪽수만 밝히기로 한다.

국은 한국과 한국의 민중을 마치 적군처럼 공격했다. 『해도초』는 미국의 신식민성이 구식민성과 등가물임을 날카롭게 확인시킨다. 즉 이 문제는 신규 식민성이라는 원인에서 비롯되었다는, 즉 반미에 대한 구조적 인식 및 역사성을 드러낸다.

따라서 준구의 ‘국방색 미군 작업복’과 나의 ‘미제 균용화’는 ‘역사적인 첫 선거’의 포스터의 ‘모두 잘 살 수 있는 새나라 건설’ 내용이 얼마나 허황된 것임을 일깨워 준다. 준구가 죽어가면서 “비행기, 아 저기 양키 비행기가……”(92)라고 내지른 마지막 비명은 이중의 식민성 속에서 신음하는 민중의 외침인 동시에 미국에 대한 민중의 항의를 압축해 놓은 표현이다. 발동선 선장이 되어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준구의 꿈은 신식민성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이 소설은 날카롭게 보여 준다. 결국 피식민 민중의 희망은 신식민성 앞에서 좌절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소설은 신식민성에 분노하는 ‘저항적 민족주의’로서의 반미를 보여주며, 이러한 신식민성이 피식민지의 내부 식민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시킴으로써 새로운 나라 만들기의 진정한 방법이란 계급과 민족이라는 이중의 식민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임을 웅변적으로 보여 준다. 하지만 계급보다는 민족 범주가 우선성으로 작동함으로써 반미의 의미가 강화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지식인-민중의 심정적 연대를 이끌어냈다는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대야말로 민족 범주 우선성을 반증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나라 만들기는 지식인의 신식민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민중의 저항적 외침이 연대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소설로 인해 1950년대에 본격적인 반미소설이 없다는 지적은 온당치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도초』가 근본주의로 흐르지 않는 것은 신문기자-서술자의 비판적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본격적이면서도 탁월한 반미소설로 일컬어지는 『분지』가 본격성에도 불구하고 근본주의로 치닫게 된 것은 민족을 절대시하는 인식에 기인한다. 이 소설이 민족을 절대시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은 것은 나-서술자의 지식인다운 비판적 안목에 기초한다. 나는 정부측 인사의 사대주의적 정치행위를 구식민성과 관련하여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미국에 대해서도 맹목적인 비난 태세를 취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도 한국 정부도 구체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민중에 대해서도 무조건적 옹호를 취하지 않는다.

『해도초』에서 젠더 연관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준구의 인생설계와 관련하여, 이번의 미역채취가 만선이 되면 곧 해산하게 될 아내와 함께 육지로 나가 단란한 가정을 꾸려 보고 싶다는 희망을 드러낼 뿐이다. 따라서 이 소설은 ‘민족’ 범주 우선성에 입각해 있지 ‘젠더’ 범주 우선성을 보이지는 않는다. 여성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남성 주인공들로 반미를 형상화하는 이러한 소설의 계보는 1972년 신상웅의 『분노의 일기』로 이어진다.

2.2. 반(反)근대화로서의 반미

2.2.1. 물질문명에 대한 부정으로서의 반미: 『끝없는 낭만』, 『쏘리킴』, 『난영』, 『태양의 유산』

물질문명에 대한 부정으로서의 반미는 두 가지로 제시된다. 하나는 정신문명(문화)을 우위로 배치하면서 물질문명의 선구로서의 미국을 거부하는 것이다. ‘문화적 민족주의’로 간주할 수도 있지만, 반(反)근대적 내포를 더 함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반근대화 계열에 포함시켰다. 다른 하나는 물질문명에 토대한 미국적 가치관을 부정하는 형태로서, 미국적 가치관(미국, 미국인)을 좋다, 나쁘다, 싫다의 개념으로 이해하면서 예전

의 한국적 가치(정신문명)를 동경하거나 그리워 하는 형태이다. 즉 윤리주의적 시선을 내포하고 있다. 전자로는 최정희의 『끝없는 낭만』을 들 수 있으며, 후자로는 송병수의 「쏘리 킴」, 오상원의 「난영」, 유주현의 「태양의 유산」을 들 수 있다.⁴⁰⁾

앞 절에서 본 바, 『끝없는 낭만』은 반공주의로서의 반미를 보여준 바 있다. 이 소설에서 반미의 또 하나의 줄기는 미국의 물질문명에 대한 강한 거부로 나타나 있다.

천하기 짝이 없는 것들(132)

너희들 미국인의 발밑에 고귀한 정신문명이 짓밟히기만 하는 거야. 너희들 발자욱이 나 있는 덴 어디라 없이 그렇게 되어 있어. (192)

미국인을 ‘천하기 짝이 없는 것들’로 보는 시선이나 ‘미국인들에 의해 정신문명이 짓밟히기만 한다’는 지적은 물질문명/정신문명의 대비에서 정신문명을 우위에 두고자 하는 태도이다. 미국을 물질문명의 상징으로 이해하면서, 물질문명을 지상 제일로 보려는 가치배분을 거부하고 있다. 근대 초기 이후 반미의 가장 큰 축이 바로 물질문명이란 점에서 1950년대의 반미가 이 계보를 계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50년대에는 패권주의적 미국의 여러 문화적 특징들의 내면화에 맞서 민족적 정체성을 환기하고 정신문명의 우월성을 강조함으로써 동양(및 한국)을 재구성하려는 일종의 담론행위가 지향된 바 있다.⁴¹⁾ 특히 한국전쟁 후의 위기의 사회는 물밑듯이 쏟아져 들어오는 미국 문명의 폐

40) 1960년 11월에 발표된 백인빈의 「조용한 강」도 이 계열에 속하지만 4·19 이후의 것이라 제외하였다.

41) 자세한 것은 김복순, 「아프레 걸의 계보와 반공주의 서사의 자기구성 방식」 앞의 글, 298~299쪽.

해가 지대하다는 인식에 직면하였고, 새로운 나라(사회) 만들기 전략은 바로 이 물질문명을 어떻게 수정하여 받아들일 것이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물질/정신의 이분법에 간혀 ‘물질의 힘 없이 새로운 문화란 불가능하다’⁴²⁾는 인식 때문에 지배담론이 되지는 못하였지만, 미국으로 대표되는 물질문명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근대화의 성취가 어렵다는 인식도 엄존하였다. 특히 자유, 민주, 해방 등의 가치가 물질문명과 동계의 것으로 수용되는 현실적 기반 위에서 이에 대한 우려는 ‘반미’적으로까지 확산되는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

여기서 정신문명은 ‘문화’와 동계의 개념으로 이해된다. 즉 문명과 문화를 분리하여, 미국과 한국이 상이한 사회적 습속에 의해 구분되는 세계리는 일종의 ‘문화담론’을 통해 서구적 근대, 즉 물질문명에 대한 비판을 수행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문화는 민족적 경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보편적 가치의 표명으로서의 문화’ 개념은 아니다.⁴³⁾

『끝없는 낭만』에서 미국은 타국의 정신문명을 짓밟는 나라로 반미적 인식을 드러내면서도, 남한과 북한에 대한 인식에서는 남한/북한을 문명/야만으로 배분하는 모순을 드러낸다.⁴⁴⁾ 이는 이 소설의 반미가 궁극적으로 ‘반공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인데, 북한을 민족의 타자로 위치지으면

42) 장세진, 앞의 글, 87~115쪽.

43) 이는 1930년대 후반 교토학파에 의해 촉발되고 문장파에 의해 강조된 동양담론과 다르다. 물론 이 둘의 담론의 차이도 크지만, 교토학파의 ‘세계사의 철학’과 ‘대동아공영권’ ‘근대초극론’ 등은 서구-백인 남성 중심의 역사개념을 부정하면서 근대화와 근대비판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역시 일본이라는 ‘하위 세계체제’를 구성하는 것에 불과했고, 민족적 경계를 해체한 다문화적 문화공동체의 긍정은 아니었다.

44) 이는 남한/북한을 우/열로 인식하는 시선이다.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한 배 곤의 아버지가 투옥되는 사건을 통해 북한 사회를 야만으로 규정하고,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남한 군에 입대하는 배 곤을 통해 북한의 ‘야만’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설정한 후, ‘부모 형제’의 논리를 도입하여 회생의 논리를 일종의 사회통합의 논리로 삼는다. 자세한 것은 김복순, 『아프레 걸의 계보와 반공주의 서사의 자기구성 방식』 앞의 글, 299쪽.

서, 악의 형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물질문명에 대한 거부가 윤리주의와 결합하면 물질문명(미국적 가치)에 대한 거부가 감정적으로 표출될 수 있다. 이는 미국이 물질문명의 가치를 대표할 수 있는나의 문제와는 별도로, 물질문명이 미국적 가치로 인정됨을 의미한다. 반미는 미국(인)에 대해 선/악, 싫다/좋다(무섭다, 밉다) 등의 감정과 결부되어 있다. 1950년대 소설에서 윤리주의로서의 반미는 대개 양공주를 통해 제시되어 있다. 양공주에 대한 혐오의 시선, 미군에 대한 치욕·굴욕적 감정으로 나타나 있다.

오상원의 『난영』(『현대문학』 1956.3)은 모 미군부대 보급계에 노무자 감독으로 근무하는 나를 통해 미군 부대 내의 비리와 부정이 한국인들에게 전가되는 현실에 분개하다 쫓겨나는 한국인 노무자들의 삶을 고발한다. 이 소설에서 미군은 범죄자들이다. 미군 부대에서는 수시로 물품들이 없어지며 거의 대부분 미군 사병이 연루되어 있다. 하지만 그 죄는 애매하게 한국 노무자에게 전가된다. 대개는 한국 노무자들이 그 죄를 뒤집어쓰고 해고되는데, 미군 부대에서도 이를 모르는 게 아니다. 다 알지만 약자에게 죄가 전가되는 것이다. ‘지배계급에게 죄란 있을 수 없’(441)⁴⁵⁾다는 것이 현실임을 거침없이 지적한다. 이 소설에서 미군은 더 이상 은인이 아니다. 물건을 훔치는 도둑에 불과하며, 그 죄마저 한국인에게 죄를 전가하는 악의 화신으로, 해방군이 아니라 이제는 명백한 지배계급이다. 지배계급으로 성장한 외세 때문에 한국인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이 이 소설의 요지이다. 즉 미군은 ‘분단’ 책임이라는 ‘민족’ 범주 및 ‘지배계급’이라는 ‘계급’ 범주의 두 가지로 비판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족 범주와 계급 범주가 동궐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민족과 계급 범주가 각각 별 개의 범주라거나, 상호대립적 또는 순차

45) 오상원, 『난영』, 『한국소설문학대계 36』, 동아출판사, 1996.

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단계적인 것이 아니라 한 쌍의 긴장관계, 연관관계임을 지시한다. 이는 계급과 민족을 통일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으로서, 반(反)근대화의 전략이 계급과 민족의 동시적, 통일적 부정과 연관되어 있음을 지시한다.⁴⁶⁾

나는 미군의 비리와 부정에 항의한다. 이민족에게 당하는 굴욕 속에서 비리를 고발한 죄로, 눈 감지 못하고 들춰낸 죄로 '나'는 해고당한다. 주인공 '문'은 신식민성에 '굴욕'을 느끼며, 불쾌한 감정을 감추지 못한다. 실제로 문의 감정은 '경멸, 굴욕, 불쾌감, 치욕, 구역질, 저주'로 표현된다. 무너져 가는 자신의 가정 및 거의 빈사상태에 이른 아내의 병도 고쳐 주지 못하는 한국-남성의 열등감은 경멸, 굴욕, 불쾌감, 치욕, 구역질, 저주로 서술된다. 결국 나는 미군의 비리에 항거하지만 '악 속에도 아름다움이 있다'는 처절한 발견에 도달하는 것뿐이다.

이 소설에서 반미는 선과 악이라는 윤리주의 시선 속에 해석되어 있다. 미국은 나쁘고, 악일 뿐이다. 윤리주의로서의 반미가 위험한 것은 그것이 구조적 인식 및 객관적 비판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좋다/싫다, 선/악은 미국을 마치 추상적 인격체로 판단하는 인식적 편향을 드러내며, 이 소설의 결말이 미군에 대한 객관적 구조적 인식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결국 산다는 문제로 귀착될 수밖에 없게 한다.

전후의 현실 속에서 가정을 제대로 꾸릴 수 있는 집은 아내를 양공주로 내보낸 경우일 뿐이라는 사실의 확인은 한국-가부장(남성성)의 추락할 대로 추락한 면모를 여지없이 보여 준다. 송씨는 아내를 양공주로 내보내면서도 '처 덕'에 '없는 게 없다'고 자랑을 하며, 심지어 '처복을 봐야 진짜 복을 이는' 거라고까지 사설한다. 그의 아내가 낮에 낙태하러 산부

46) 해방직후 임화 및 김남천의 민족문화론도 계급과 민족 범주를 통일적으로 파악하는 시각을 드러낸 바 있으나, 동시적·통일적 부정과는 다른 방향이었다. 즉 반 근대화의 전략과는 다른 관점이었다.

인과에 들렀다는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나는 송씨의 삶에 거침없는 비판을 가한다. 결국 이 소설에서 한국 가부장의 체면(남성성)은 굴욕, 경멸감 등의 감정을 매개로 신식민성에 ‘항변’함으로써 그 최대치를 확보하게 된다.

송병수의 『쏘리 킴』(『문학예술』 1957.7)은 ‘쏘리(shortly) 킴’이라는 어린 아이의 눈을 빌어 양공주에 대해 말하며, GI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다. 쏘리는 전쟁과 분단의 결과로 생긴 고아였다. 아버지는 빨갱이가 들어왔을 때 다락에 있다가 잡혀 갔으며, 어머니는 폭격으로 무너진 대들보에 깔려 죽었다(196).⁴⁷⁾ 고아원에서 만난 아이들과 미군 트럭에 올라탄 후 양공주인 따링 누나를 만났고, 친구 딱부리는 하우스보이가 되었다. 이 소설은 아이의 눈으로 미군부대의 실상을 세태묘사 하면서, 따링누나의 힘겨운 삶을 따뜻한 시선으로 보여 준다. 쏘리는 따링누나에게 미군을 소개하고 커미션을 먹는 처지(웍프, pimp)인데, 어른들의 세계에 대해 모르는 척 능청떨지만 실제로 알 것은 다 알고 있다. ‘능청떨기’는 일종의 거리두기의 방식이지만, 현실을 객관화 하는 방식이라기보다 주관화의 방식이다.

이 소설의 서두에 나오는 길 복판에 버티고 있는 고목나무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상징한다. 양키들은 심심할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이 나무에 대고 총쏘기, 칼 던지기 연습을 한다(188), 즉 일본과 미국의 칼과 총에 맞아 차례로 식민지가 된 상황을 환유한다. 또 미군부대에 어른거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총 맞아 죽은 한국 사람을 구렁텅이에 썩씩 해치우는(198) 미군을 고발하는 듯하지만, 분노의 시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린 아이의 시각으로 제한되어 있어 양갈보가 겪는 고통과 신식민성

47) 송병수, 『현대한국문학전집 14』, 신구문화사, 1981. 이후 이 작품의 인용은 쪽수만 밝히기로 한다.

이 제대로 드러나지는 않았다. 전쟁고아는 전쟁과 분단의 비극성을 고조시키지만, 어린 아이는 자신의 지(감성)적 능력 한도 내에서만 사회현실을 볼 수 있을 뿐이다. 실제로 쏘리의 미군에 대한 인식은 때론 선망의 대상으로, 때론 ‘동화적’이기까지 하다. 어린 아이의 시선으로는 한미관계라는 역사적 배경, 외세에 대한 참 모습 등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원식이 이를 ‘세태소설’이라 평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소설에서 특이한 점은 양갈보가 마치 엄마처럼 형상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쏘리는 따링 누나가 ‘꼭 껴안아 주는 게 좋고 무엇보다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고 몽실한 젓꼭지가 좋다’(195)고 함으로써 양갈보를 엄마로 자리매김한다.⁴⁸⁾ 쏘리에게 미군에 대한 분노가 생긴 것도 엠피에게 따링 누나가 잡혀간 이후이다.

이젠 이곳 양키부대도 싫다. 아니, 무섭다. 생각해 보면 양키들도 무섭다. 불독같은 놈은 왕초보다 더 무섭고, 엠피는 교통순경보다 더 밍다. 빨리 이곳을 떠나 우선 서울에 가서 따링누나를 찾아야겠다. …… 따링누나를 만나 왈칵 끌어 안고 실컷 실컷 울어나 보고, 다음에 아무데나 가서 오래 자리잡고 ‘저 산 넘어 햇님’을 부르며 마음 놓고 살아 봤으면……(200)

쏘리의 소원이 무서운 양키를 피해 따링누나와 함께 멀리 가서 ‘저 산 넘어 햇님’ 노래를 부르며 마음 놓고 살아 보는 것이라는 점에서, 양갈보는 여성 혐오의 시선으로 재현되기보다, 즉 ‘훼손당한 민족의 육체’보다 ‘함께 정착해야 할 대상’으로 자리매김되어 있다. 여기서 엄마는 일종의 ‘고향’이다. 잃어버린 낙원의 의미를 지닌 고향으로서, 근대 이전 세계에 대한 상대적 가치평가의 의미를 띤다. 양갈보를 어머니로 자리매김할 수

48) 백인빈의 『조용한 강』에서도 어머니를 잃은 상실감과 어머니에 대한 고향 같은 그리움이 계모로 들어 온 와이케비(양갈보)에게도 적용되어 나타나지만, 그 시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있었던 것은 ‘동화적’ 시선으로 ‘낙원’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쏘리 킴』 역시 ‘무섭다’ ‘밋다’ 등의 윤리주의적 시선에 기대어 ‘고향’ ‘낙원’ ‘어머니’에 대한 갈망을 미국비판을 통해 ‘주관적’으로 드러낸다.

여러 논자들이 무비판적으로 이 소설을 기지촌 소설의 효시라 평가하고 있으나 이는 최원식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인용한 결과일 뿐, 사실과 다르다. 한말숙의 『별빛 속의 계절』은 이보다 앞서 발표되었다. 기지촌 소설이란 용어는 기지촌의 문제를 ‘매춘 중심’으로 보는 시차이다. 기지촌 소설은 또한 미국에 대한 굴욕적 오리엔탈리즘을 확대재생산하는 ‘기지’가 될 수가 있다⁴⁹⁾는 점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기지촌 문제는 자본주의의 확산에 따른 성 매매, 전후의 빈곤 문제, 매춘의 정치사회적 확대 등등의 종합적인 문제임에도 기존 연구에서 반미의 문제가 소홀히 취급된 것은 ‘성 중심적’ ‘여성 비하적 시선’ 하에 ‘매춘중심’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쏘리 킴』에 비해 한말숙의 『별빛 속의 계절』(1956)은 한층 고양된 비판성을 드러낸다. 전자가 ‘어머니’로 형상화하는 특징을 드러냈다면 후자는 ‘사랑’으로 양공주 문제에 접근한다. 이 소설은 양공주를 사랑하게 된 하우스보이 영식(17세)이 미군을 ‘미워하고 증오’하다가 해고된다는 줄거리이다. 여기서 미군들은 ‘달러의 가치’로 환원되고, 양공주는 ‘차디찬 표정’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 소설에서 반미는 사랑하는 자민족의 여성을 미군에 빼앗겨 분노에 찬 피식민 남성의 ‘한탄과 증오’로 서술되어 있다. 영식은 당대의 현실에 체념하는 인간형은 아니라는 점에서 순응주의적 인물은 아니다. 특히 영식은 사랑하는 경자의 양공주 생활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며 캡틴 포드의 집기들을 닦치는 대로 부순다. 오히려 경자는 체념적 인간형으로 묘사되는데 반해 영식은 저항하고 비판하는 인물

49) 고영직, 앞의 글, 444쪽.

형으로 그려 놓았다. 영식의 이러한 행위는 미국 비관의 의미를 지닌다. 여기서 양공주는 불결과 타락, 수치의 기표로 형상화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여성젠더 작가가 쓴 양공주 소설의 특징이다.⁵⁰⁾ 남성-서술자이지만, 여성젠더화 되어 있다. 경지는 오직 가난 때문에 양공주가 된 경우로서(생계형 양공주), 영식이 연모하는 여성이 된다.

「쏘리 킴」이 어린 아이를 통해 식민/ 피식민 간의 남성성이 충돌하는 것을 막고 있다면, 이 소설은 성인 영식을 통해 두 남성성의 충돌을 보여 준다. 질 것이 뻥한 피식민 남성을 통해 증오하게 함으로써 최소한의 민족 주체성을 확보케 하고 있다.

유주현의 「태양의 유산」(1957)도 양공주를 그린 소설이다. 4년만에 돌아온다는 딸을 돈 벌어 오는 줄 알고 고대했지만 검둥 아이를 데리고 오자 창피하다고 내쫓는다는 이야기이다. 여기서는 양공주가 불결과 수치, 악의의 기표로 재현되어 있으며, 반미적 인식은 이러한 기표의 원인으로 언급된다. 이 소설 역시 「난영」과 마찬가지로 선과 악이라는 윤리주의 시선에 갇혀 있어 반미에 대한 구조적 인식에 도달하지는 못한다.

이 계열에서 반미의 문제는 물질문명에 대한 거부 또는 선과 악, 미움과 사랑으로 환원되어 윤리의 문제로 치환되어 있다. 따라서 반미의 의미는 강하지만 주관적이다. 주관적 분노(혐오), 반발은 강하지만, 체제에 대한 반발은 미약하다. 분단의 원인에 대한 천착도, 그 극복 노력도 약한 편이다. 윤리주의로서의 반미가 편향인 것은 국가-국가, 민족-민족 간의 문제를 추상적 인격체처럼 인식하며 주관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양공주에 대해서는 불결, 수치, 더러움 등의 부정적 인식이 엿보인다. 이 계보에서 반미의 대상은 ‘문화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다. 미국은 경제적

50) 김복순, 「아프레 걸의 계보와 반공주의 서사의 자기구성 방식」, 앞의 글, 285~308쪽 참조.

으로는 후원자일지 모르지만, 문화적으로는 민족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부터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었다. 즉 경제적으로는 친미여도, 문화적으로는 반미였다.

이 계보는 1950년대에 새롭게 생산된 동양-서양의 표상과 연관된다. 1950년대에는 기존의 동양-서양이란 도식에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독립한 ‘소위 제3세계’ 국가들이 인식의 창에 잡히기 시작한다. 즉 남한-아메리카 외에, 아시아, 아프리카 나라뿐 아니라 아랍에 대해서도 폭넓게 소개하면서 그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주목하게 된다.⁵¹⁾ ‘소위 제3세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의 시작은 약소민족일지라도 정신문명의 소유자라는 인식을 증폭시켜 주었다. 다시 말하자면 보편과 특수 관계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다. ‘특수’로서의 ‘동양’이 확장되면서 동양의 위상과 가치에 대한 재사유를 포함하였고, 동양/서양이라는 이전의 이항대립적 개념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며 ‘보편’에 대한 재사유 및 보편/특수 관계의 재설정을 요청하게 된다.⁵²⁾

구식민지 시기의 물질문명/정신문명의 논의와 다른 점이 있다면, 구식민지 시기의 제국 일본이라는 내용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북한의 표상을 대타적으로 삽입하는 점과, 북한을 물질문명과 동위의 ‘야만의 표상’, ‘악

51) 『여원』 및 『사상계』에는 특집이 여러 차례 실리며, 개별 논문도 상당히 많다. 아시아-아프리카 논의가 시작된 것도 1955년이다.

52) 이는 1930년대 후반의 대동아공영권이라는 또 하나의 ‘세계체제’로서의 동양적 전회 및 근대 초극론에서의 동양 개념과 다르다. 이때는 모든 악을 ‘서양적 근대’에 귀속시키는 담론전술이 활용되면서 서양적인 것을 삭제하고 동양적인 것을 기입하려는 시도(차승기, 『반근대적 상상력의 임계들』, 푸른 역사, 2009, 8~9쪽)였던 반면, 1950년대의 동양 개념에서 삭제된 것은 ‘서양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위 세계체제’였던 ‘일본’이며, 중국에 대한 동양의 전형으로서의 재설정과 소위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특수에의 편입이라는 점이다. 즉 보편과 특수 관계가 달라지는 것이며, 일본으로 통칭되었던 동일화 담론이 해체된다. 이에 관해서는 후속 논문에서 상세하게 고찰할 것이다.

의 표상'으로 설정하면서 민족의 타자로 재편⁵³⁾하는 점이다.

2.2.2. 남성 중심적 근대화에 대한 비판으로서의 반미: 「전략의 기록」

조금 다른 각도에서, 근대화의 성격이 남성 중심적이며, 근대-민족-국가 개념 또한 남성 중심적이라는 점에서 근대가 지닌 '남성 중심적 성격' 비판에 초점을 맞추어 반미를 드러내는 일군의 소설들이 있다.

「전략의 기록」(1953)은 결혼을 약속했지만 남자로부터 배신당한 여자가 자발적으로 양공주가 되는 과정을 그린다. 이북 출신인 대학생 순실은 월남하여 남의 집 가정교사로 들어가 그 집의 아버지 장과 결혼을 약속하게 된다. 일년 후 학업을 마칠 때까지 다른 집에 기거하며 기다리기로 하였지만, 장은 그새 가정교사의 후임으로 자신이 천거한 동창생 수연이와 동침하는 관계가 된다. 장의 호색한적 면모를 증오하는 사이, 어릴 때 집안끼리 정혼한 강명규를 만나지만 이미 약혼한 사실을 들어 결혼할 수 없다고 말한다. 장에 대한 증오와 분노로 들끓던 순실은 장이 관계를 청하며 들이밀자 칼로 그의 눈을 찔러 병신을 만든다. 강명규는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한 후이다. 아들이 병신이 된 것을 알게 된 장의 어머니로부터 한바탕 행패를 겪은 순실은 밖으로 뛰쳐 나가 걷다가 자신을 유혹하는 흑인과 함께 잠자리를 갖게 된다.

이 소설은 대학생인 지식인 여성이 양공주로 자발적으로 전략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여성들을 전전하는 약혼자에 대한 배반감에 못 이겨 핏김에 충동적으로(?) 양공주가 되는 순실의 전략은 장의 어머니, 강명규, 강명규의 어머니 등을 통해 한국 사회 전체가 공범자라는 인식을 드러낸다. 여성들을 가리지 않고 유린하는 장을 통해서도 남성들의 노리개 감에 불과한 여성을, 장의 어머니와 강명규의 어머니를

53) 김복순, 앞의 글, 298~299쪽.

통해서는 이 사회의 가부장 의식이 얼마나 강고한 것인가를 거침없이 알려 준다. 장의 어머니는

아니, 그래 서방이 오입 좀 했기로나, 칼부림 하는 년이 어디 있노. 너는 그래 화관 족두리 쓰고 왔나, 오다 가다 만난 년이지. 그래 밥 먹여 주겠다, 옷 입혀 주겠다, 병들면 병 고쳐 주고 내 아들 만침 똑똑하게 계집 건사하는 놈 또 어디 있더나, 양?(315)

장과 장의 어머니에 의해 드러나는 한국 가부장제의 면모는 남자의 오입은 전혀 대수롭지 않으며, 여자는 그를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는 뿌리 깊은 남성 중심주의이다. 또 가부장은 집안에 돈을 대면 그만이고, 그것이 가정을 잘 지키고 계집을 건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있다.

결국 양공주로의 전략이라는 순실의 극단적 선택은 양공주로서 흑인의 상대가 될지언정 한국사회의 일원이 되지 않겠다는 항변으로 해석된다. 즉 순실의 양공주화는 이 땅의 가부장성 및 그 가부장성을 아직도 공고히 유지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근대화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⁵⁴⁾ 남성 중심적 근대화에 대한 부정이며, 단순히 사고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장을 칼로 찌름으로써 여성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부정의 힘’을 분명히 보여 준다.

이러한 시각은 양공주 또는 미군 주둔의 문제를 ‘구조’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보다 여성 개인의 자발성에 ‘무반성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여지’⁵⁵⁾도 있으나, 양공주를 희생양으로 그리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54) 더구나 이 소설은 이복 출신을 차별하고 경계 짓는 시선도 보여 준다. 장의 어머니는 ‘이복 년은 다 그렇냐’(315)고 외치며, ‘이복 연놈이라면 자다가도 이가 갈린다’(316)고 치를 떠다. 1953년에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이미 그 이전에 이러한 담론화의 방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말봉, 『전략의 기록』, 『한국대표단편문학전집 11-작고작가편』, 정한출판사, 1978.

는 점에서 시차의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부분이다. 여성의 자발성에 대한 강조는 ‘여성수난사 이야기’를 벗어나는 계기를 확보케 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여성은 이제 민족·국가·사회에 의해 수동적으로 수난 당하는 존재에 머물지 않고, 자발성 및 능동성으로 자신의 삶을 일구는 주체적 존재가 된다.

순실이 흑인의 품에 안겨 ‘절망 비슷한 안도감’을 느끼고 ‘미소를 자아내’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이다. 따라서 『전략의 기록』에는 양공주에 대한 저항감이 별로 없으며, 전략이긴 해도 ‘불결’로 규정되지 않는다. 다만 흑인과의 만남을 일종의 ‘전략’으로 보는 제목의 해석에서, 또 흑인으로 지칭되는 미군이 ‘성적 전략’ ‘타락’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약하게 반미를 읽을 수 있다. 흑인이 ‘사창굴’과 연결되어 있다는 표현으로 미루어 한국여성의 성적 전략에 책임이 있다는 정도이다.

김성환의 『매체』(1954)도 자발적으로 양공주가 되는 여성을 그리고 있으나, 반미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매체』의 한천옥은 반한(反韓)의 입장에서 한국 및 한국남자를 고리타분하고, 예의 없으며, 따분한 종족으로 묘사한다. 한마디로 한국 남자는 봉건적, 비민주적인 ‘미개한 야만종’으로 강조되어 있으며, 자신은 세계국가적인 ‘국제적 매체’가 되겠다 하여 스스로 양갈보가 된다. 그렇다고 한천옥이 ‘친미’인 것은 아니다. ‘애꾸눈도 저마다 가는 미국’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전략의 기록』의 서술자가 ‘나’ 일인칭으로서, 여성에 대한 우호적 시선을 견지하고 있다면, 『매체』의 서술자는 전지적 시점(남성 인물로 초점화됨)에서 한천옥에 대한 야유조로 일관한다. 서술자의 젠더에 따라 시선의 차이가 입증되는 대목이다.

스스로 양갈보가 되는 이러한 계보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1980년대

55) 장세진, 앞의 글, 195쪽.

의 강석경의 『낮과 꿈』 『밤과 요람』으로 이어진다. 이전 시기의 채만식의 『낙조』(1948)와 이후 시기의 오영수의 『안나의 유서』(1963년)⁵⁶⁾가 있다. 여성젠더 서술자의 시선 및 남성 중심적 근대에 대한 비판과 관련하여 여서는 최정희의 1946년의 『풍류 잡히는 마을』⁵⁷⁾과 연결된다. 즉 해방 직후의 『풍류 잡히는 마을』이 강렬하게 보여준 ‘여성젠더 소설’의 ‘방법’을 계승한 것이었다. 이 지점에서 해방직후와 1950년대는 단절이 아니라 연속임을 알 수 있다.

『전략의 기록』의 순실은 『낙조』의 춘자나 『풍류 잡히는 마을』의 ‘나’처럼 강하게 남성 중심적 근대화를 비판하지는 않지만, 대신 ‘행동으로’ 이 땅의 남성 중심성을 ‘거부’하고 ‘흑인을 선택’함으로써 한국-남성 및 한국의 근대화를 비판하는 동시에 흑인 또는 미군으로 지칭되는 성적 타락의 인물군상들을 아울러 비판한다. 반미의 수준은 최정희의 『풍류 잡히는 마을』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미흡하지만, 한국-남성을 거부하고 사회 및 국가가 혐오하는 양공주를 스스로 선택한다는 설정은 반 근대화의 의지를 충분히 드러내는 것이다.

56) 양공주로 전략한 주인공 안나는 유서를 통해 “내게는 죄가 없다!”고 항변하며, 남성 중심적 사회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한다.

57) 1946년에 출판된 최정희의 『풍류 잡히는 마을』은 정치적 여성 주체의 탄생과 함께 남성 중심적 근대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이채롭다. 『풍류 잡히는 마을』은 기회주의로서의 친일-친미 협력자, 무지몽매한 농민들, 미국이라는 외세를 모두 비판한다. 삼비론(세 가지 모두 거부하는 논리)은 남성 중심적 근대화 비판의 핵심이다. 남성 중심적 근대화론에 대한 대안은 여성과 농민-지식인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나라 만들기’였다. 이 소설의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특징은 이러한 비판이 모두 여성젠더 서술자에 의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1946년 작임에도 미국을 해방군이나 은인으로 묘사하기보다 ‘족제비’로 상징되는 점령군·침략군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미국은 우리나라의 풍속까지 송두리째 파괴하는 원흉으로 그리고 있다(자세한 것은 김복순, 『정치적 여성 주체의 탄생과 반미 소설의 계보』, 근간. 참조).

2.2.3. 반(反)자본주의로서의 반미: 「고요한 밤」

박용구의 「고요한 밤」(1952)은 돈의 노예가 되어 가는 기지촌의 풍경을 통해 미국식 자본주의 가치관의 유입으로 인한 폐해 및 다음 세대에 까지 미치는 커다란 부작용(후유증)을 보여 준다. 앞의 ‘물질문명에 대한 거부’가 정신문명을 대타로 설정하고 있다면, 여기서의 반(反)자본주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등이 대타의 개념이다.

이 소설 역시 「썰리 킴」과 같이 승호라는 어린 아이의 시선으로 전개 된다. 승호는 썰리가 고아인 것과 달리 엄마와 함께 산다. 승호의 엄마는 기지촌에서 양공주를 거느리고 장사하는 포주이다. 승호 역시 썰리처럼 누나들을 소개하고 소개비를 받는데, 썰리와 다른 점은 너무 일찌감치 돈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점이다. 승호가 인심이 후하고 돈을 넉넉히 주는 숙자를 좋아하는 대신, 인색하기 짝이 없는 옥분을 좋아 하지 않는 것은 돈의 넉넉함과 관련되어 있다. 승호의 고급 장난감 권총과 길수의 나무 권총, 인수의 종이로 만든 권총은 기지촌의 경제규모조차 이미 빈/부로 경계가 나누어지고 계급화되어 있음을 일러 준다.

승호는 미끈한 옷과 번쩍거리는 권총을 자랑삼아 휘두르고, 학교에 다니는 것보다 담배장사나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양갈보 누나들이 하는 일도 모두 ‘돈 버는 행위’로만 인식한다.

저 모자도……또 구두도 그것은 모조리 미국에서 비행기로 가져왔다는 것이다. 길수도 그런 누나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6)⁵⁸⁾

지금도 킬킬거리고 있을 빨간 입술이, 헐떡이는 가슴이 생각난다. 파란 지전이 스무장. 헤트라이트같이 흐르는 파란 지전. 참 숙자 누나는 예

58) 박용구, 「고요한 밤 외」, 『신한국문학전집 21』, 어문각, 1970. 이후 인용은 쪽수만 표시하기로 한다.

빠……그러기에 지전이 자꾸만 흐르지.

“나두 자라면 저런 자동차 사야지……”.

승호의 눈은 흘러가는 헤트라이트같이 빛났다.(9)

승호의 ‘서부 장난’은 승호를 포함한 기지촌 어린 아이들의 동경의 대상이자 꿈의 세계가 미국임을 지시하면서, 이들의 서부장난이 ‘무슨 마련된 연극의 한 토막이거나 한 것같이’ 일정하게 승호의 승리로 끝난다는 것을 일러 준다. 자본주의적 가치관의 결과에 대한 암시적 발언으로서 의미심장한 부분이다. 아이들은 모두 승호에게 ‘종속’되어 놀이를 하는 것이다. 즉 승호의 승리는 ‘돈’을 소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일상적’ ‘심리적’ 종속을 제시한다.

이미 어린이들에게까지 확산된 자본주의적 가치관의 세계에서 기지촌 여성의 ‘훼손된 성’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기지촌의 양공주는 ‘쌓이는 지전’으로 인식되며, 예쁜 얼굴은 훌륭한 자본으로 인식된다. 이들의 세계에서 옥분 누나의 방에서 난 총성은 별 의미가 없다. 사람이 다치고, 삶이 망가지는 것은 이미 다반사여서 별로 놀랄 일도 아니다. 돈의 노예가 된 전후의 암담한 현실은 이미 승호 세대에까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음을, 양공주들이 헐떡거리는 밤을 ‘지전이 쌓이는’ ‘고요한 밤’ ‘아름다운 밤’이라고 반어적으로 말한다.

양공주는 승호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지만, 승호의 큰 아버지로부터는 ‘더러운 년들’로 불리운다. 양공주들이 뭐가 더럽냐고 대들자 승호 큰 아버지는 뒷걸음질로 도망친다. 벌써 여러 차례 승호네로 돈을 꾸러 왔었던 것이다. 이 소설은 돈을 만능으로 여기게 하는 자본주의적 가치관 및 실태를 비판하면서, 이미 후대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자본주의적 예속화를 반어적으로 강하게 경고한다.

2차 세계대전 및 한국전쟁 이후의 분단체제는 자본주의의 하위체제로

서, 남북한의 진정한 민주화는 분단체제의 극복 없이는 불가능하다. 즉 민주화와 분단체제의 극복은 근대 자본주의 세계체제극복을 동시에 지향할 때 가능해진다. ‘반(反)자본주의로서의 반미’의 의미는 따라서 한국 전쟁 이후의 근대 체제의 극복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이 계보는 자본주의 발달단계의 성숙도가 낮은 1950년대에는 미미한 편이고, 발달단계가 어느 정도 진척되는 1980년대 이후 황석영의 『무기의 그늘』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1950년대에 비록 이 계보가 일천하게 제시되었다 할지라도 분단체제의 극복을 통한 근대(자본주의) 극복 과제의 염원을 현실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중차대하다.

3. 맺는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 1950년대의 반미는 근대 지향적 성격과 반(反)근대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음이 드러났다. 상반되는 이 두 가지의 특징이 고루 나타났다는 것은 이 시기가 근대화에 대한 깊이 있는 천착 뿐 아니라, 식민성의 문제와 함께 반 근대화의 시선이 강하게 존재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새로운 나라 만들기’와 관련하여 상반되는 탈식민적 시차(視差)가 동시에 존재하였음을 입증해 준다. 반미에서조차 상반되는 시차가 두루 나타날 만큼 1950년대 문학은 다양성과 중층성을 갖고 있었다.

근대 지향적 이념으로서의 반미는 ‘가부장성의 수호’로서의 반미, 반공주의로서의 반미, 저항적 민족주의로서의 반미로 분류되었으며, 반(反)근대화로서의 반미는 물질문명에 대한 부정으로서의 반미, 남성 중심적 근대화에 대한 비판으로서의 반미, 반(反)자본주의로서의 반미로 분류되

었다. 이와 같은 상반된 탈식민적 시치는 미국표상이 정치 경제 군사 문화적으로 동일하지 않았으며, 이 네 가지가 서로 충돌·경합하면서 ‘반미’를 생산하고 있었음을 반증해 준다.

전자의 계열에서 젠더는, 한편으로는 ‘성적으로 전유’되어 ‘가부장성의 수호’라는 남성성 회복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반공주의의 여성성 전유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반공을 위해 참전한 미군과의 낭만적 사랑을 꿈꾸는 지식인 여성을 통해, 반공주의를 가열차게 실천하지 않는 미국을 비판하면서, ‘반미-반공’ 연합을 창출하여 이채로운 반미의 유형을 보여 주었다. ‘반미-반공 연합’은 ‘통일론의 관점’에서 여성을 ‘낭만적 사랑의 주체로 전유’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양공주-낭만적 사랑’ 유형의 아프레 걸은 반공주의가 여성성을 전유하는 방식 중 하나였다.

저항적 민족주의로서의 반미 계보에서는 ‘여성’이 마치 ‘민족적 저항을 방해’하는 요인인 것처럼 서술되었다. 즉 여성은 ‘저항적 민족주의로서의 반미’를 방해하고 동족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존재로 언급되었다. ‘민중의 힘의 발견’은 드러났지만, 여성들은 새로운 삶을 ‘꿈꾸게’도 하는 동시에 ‘불가하게’도 만드는 ‘위험한 존재’로 부각되었으며, 피식민 여성은 피식민 남성의 위기 탈출 및 남성성 회복에 기여한 후, 역할이 끝나자 버려졌다.

후자의 계열에서는 근대화의 남성 중심적 성격들이 비판되고 있기에 전자 계열에서처럼 여성이 매도되거나 버려지지 않았다. 물질문명이 비판되면서 피식민 내부의 가치들이 상대적으로 인정되면서, 피식민 내부의 이중 타자였던 여성성들도 일정하게 인정되었다. 여성 인물들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처 덕’ 등으로 일정하게 정체성을 확보받는 존재로 부각되었으며, 양갈보조차 ‘고향’의 이미지로 ‘어머니’와 등가물이 되었다. 전자 계열에서와 달리 양공주도 부정적으로 형상화되지 않았으며, 여성 스스로 양공주로 전략함으로써 근대-민족-국가-사회의 남성 중심성에

대한 강한 거부 및 비판도 보여 주었다. 이중의 식민성을 제거하는 일이야말로 새로운 나라 만들기의 중요한 요소임을 피식민 여성젠더의 시선을 통해 명쾌하게 제시하였다.

후자의 계열에서 특히 특징적인 것은 민족과 계급 범주가 각각 별개 또는 단계적 해결이 요청되는 범주가 아니라, 한 쌍의 긴장관계·연관관계로 형상화된 점이었다. 이는 계급과 민족을 통일적 관점으로 파악하는 것으로서, 반 근대화의 전략이 계급과 민족의 동시적, 통일적 부정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려 주었다.

물질문명/정신문명에 대한 대비적 인식은 1950년대에 새롭게 생산된 동양의 표상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식민지 시대의 제국 일본이라는 내용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남한의 표상을 삽입하는 동시에 북한을 악의 표상으로, 민족의 타자로 재편하는 것이었다. 후자의 계열은 이러한 표상의 재편과정을 잘 반영해 주었다. 『끝없는 낭만』은 전자와 후자를 모두 드러내는 이색성을 띄는 바, 이는 1950년대에 ‘근대 지향’과 ‘반근대’가 착중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반증해 주었다.

후자의 계열에서 여성의 자발적, 능동적 ‘부정의 힘’에 대한 강조는 양공주를 희생양으로 그리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에서 시차의 문제가 중요하게 지적되었다. 여성의 자발성에 대한 강조는 ‘여성 수난사 이야기’를 벗어나는 계기를 확보케 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또한 서술자의 젠더와 관련하여 볼 때 전자에서는 거의 여성젠더 서술자가 나타나지 않았음에 비해, 후자에서는 여성젠더 서술자가 전면에서 각되거나 여성 인물로 초점화 된 전지적 서술자가 배치되었다. 이는 해방 직후의 ‘여성젠더 소설’의 ‘방법’을 계승한 것이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전자의 계열은 ‘민족 범주 우선성’ 속에서 작동하고 있었으며, 후자의 계열은 ‘다른 근대화의 지향성’을 드러내었다. 후자는 세계사적으로 진행되는 근대화에 대한 직·간접적 비판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아직 ‘다른 근대화’의 구체적 대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었다. 즉 1950년대의 반 근대화 지향성은 당대의 근대화에 대한 ‘부정성’(비판)으로 제시되었지, ‘다른 근대화’에 대한 긍정성(복수의 근대 등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었다.

비중(빈도수 및 강도) 면에서는 전자의 계열이 후자의 계열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는 1950년대가 새로운 나라 만들기의 한복판에 있었음을 상기할 때 이해되는 부분이다.

무엇보다도 눈 여겨 보아야 할 점은, ‘친미-반공’ 연합이 아닌 ‘반미-반공’ 연합을 발굴하여 제시했다는 점이다. 선우 휘의 『깃발 없는 기수』는 ‘반미+반공’을, 최정희의 『끝없는 낭만』은 ‘반공주의로서의 반미’를 보여 주었다. 1950년대는 전면적인 친미-반공 카르텔도, 반미의 무풍지대도 아니었음이 본 연구로 확인되었다. 1960년대 이후와 달리 반미의 외연이 다양하게 확장되어 있었다.

본고는 1950년대 소설 연구에 깊이 각인되어 있던 시차의 문제를, 젠더를 들어 재론하여, 상대적으로 가치평하 된 1950년대 소설에 대한 재사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반미 계보의 소설을 통해 이를 입증하였다.

본 연구 결과 1950년대 소설은 지배담론에 종속되어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저항담론’의 성격도 일정하게 표출하고 있었으며, 각 계열에서 확인되는 반미의 시차는 1950년대 문학의 분단문학적, 민족문학적 특징으로 지적되었다. 1950년대 소설 역시 국가·민족·젠더·계급의 차원에서, 근대화와 근대 극복이라는 ‘이중과제’를 나름대로 실천한 문학이었다.

앞으로 남은 과제가 있다면 1950년대의 다양한 담론과의 연관 여부를 정치하게 확인하는 일, 그리고 해방직후의 소설로부터 2000년에 이르기까지의 반미의 계보를 명확히 구성하고, 각 계보의 특징을 상세하게 검토하여 인식민성의 다양한 깊이를 천착하는 일이다.

□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김말봉, 「전략의 기록」, 『한국대표단편문학집집 11 - 작고작가편』, 정한출판사, 1978.
- 남정현, 「경고구역」, 『남정현 문학전집 1』, 국학자료원, 2002.
- 류주현, 「태양의 유산」, 『한국소설문학대계 32』, 동아출판사, 1995.
- 박용구, 「고요한 밤 외」, 『신한국문학전집 21』, 어문각, 1970.
- 선우휘, 『깃발 없는 기수』, 황순원·김성한·이어녕 편, 『선우 휘 문학선집 3』, 조선일보사, 1987.
- 송병수, 「쏘리 김」, 『현대한국문학전집 14』, 신구문화사, 1981.
- 오상원, 「보수」, 『현대한국문학전집 7』, 신구문화사, 1981.
- 오상원, 「황선지대」, 『현대한국문학전집 7』, 신구문화사, 1981.
- 오상원, 「난영」, 『한국소설문학대계 36』, 동아출판사, 1996.
- 전광용, 「해도초」, 『사조』 1958.8, 『한국해양문학선집 2』, 한경, 1995.
- 최정희, 『끝없는 낭만』, 동하출판사, 1958.

2. 단행본

- 김진웅, 『반미』, 살림, 2003.
- 문동환·임재경 외, 『한국과 미국』, 실천문학사, 1986.
- 문정인·김세중 편 『1950년대 한국사의 재조명』, 선인, 2004.
-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편, 『냉전 아시아의 문화풍경』, 현실문화, 2008.
- 서중석, 『이승만과 제1공화국』, 역사비평사, 2007.
- 심양섭, 『한국의 반미 - 원인·사례·대응』, 한울, 2008.
- 이혜숙, 『미군정기 지배구조와 한국사회』, 선인, 2008.
- 슬라보예 지젝, 김서영 옮김, 『시차적 관점』, 마티, 2009.
- 吉見俊哉, 『親美と 反美』, 岩波新書, 2007.

3. 논문

- 강진호, 「외세의 질곡과 민족의 주체성」, 『남정현 문학전집 3』, 국학자료원,

- 2002, 61~75쪽.
- 고영직, 『한국 반미문학사 서설』, 『전쟁은 신을 생각나게 한다』, 화남, 2003, 433~479쪽.
- 김복순, 「전후 여성교양의 재배치와 젠더정치」, 『여성문학연구』 제19호, 2007, 7~60쪽.
- 김복순, 「아프레 길의 계보와 반공주의 서사의 자기구성 방식」, 『어문연구』 제141호, 2009, 285~308쪽.
- 김복순, 「정치적 여성 주체의 탄생과 반미소설의 계보」, 2009(근간).
- 김상일, 「반제·반봉건 문학선」, 『반미소설선』, 한겨레, 1988. 9~41쪽.
- 박훈하, 「기지촌 소설의 존재방식과 이데올로기」, 김정자 외, 『한국현대문학의 성과 매춘 연구』, 태학사, 1996, 145~190쪽.
- 이강로, 「한국내 반미주의의 성장과정 분석」, 『국제정치논총』 제44집 4호, 2004, 239~261쪽.
- 이성욱, 「반미문학의 전개과정과 과제」, 『비평의 길』, 문학동네, 2004, 274~300쪽.
- 임현영, 「반외세 인식의 문학적 성과」, 『분단시대의 문학』, 태학사, 1992, 171~187쪽.
- 장세진, 「상상된 아메리카와 1950년대 한국문학의 자기 표상」, 연세대 박사논문, 2008, 1~230쪽.
- 장자영, 「해방이후 소설의 한미관계 수용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2004, 1~116쪽.
- 최원식, 「민족문학과 반미문학」, 『창작과 비평』, 1988년 겨울, 77~93쪽.
- 하정일, 「반미의 세 층위」, 『민족문학사연구』 제36집, 2008, 313~337쪽.
- 커밍스, B., 「한국 반미주의의 구조적 기반」, 『역사비평』 62호, 2003. 봄, 45~84쪽.

Abstract

Aspects of Anti-American and Gender in 1950's Narratives

Kim, Bok-soon

Anti-Americanisms in 1950's narratives had modernity and anti modernity at the same time. It shows that there are opposing decolonialistic gaps of view points in 'New country making' process, which means 1950's literature are diversified and layered. Those opposing gaps prove there is no unified image in American politics, economies, armies or cultures and there four factors collide each other to generate Anti-Americanisms.

The first geneology narrativess were working in the nationalism category priority, and the other gave other modernity priority. It is valuable in that it criticized 'Capitalized Modern as the World Regime'. However, the most important idea is that it found out not 'pro-American - anti-communism' but 'anti-American - anti-communism' alliances.

This research finds out that 1950's narratives are resisting, and at the same time they show characteristics found in division literature and nationalist literatures. 1950's narratives tries to attain and come over modernity at the same moment.

Key words : anti-American, elimination of occupation, cold war system, decolonialistic view, anti-communism, anti-American - anti-communism' alliance, american presentation, division literature, nationalist literature.

■ 본 논문은 4월 30일에 접수되어 5월 11일부터 27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5월 30일에 게재 확정되었음.